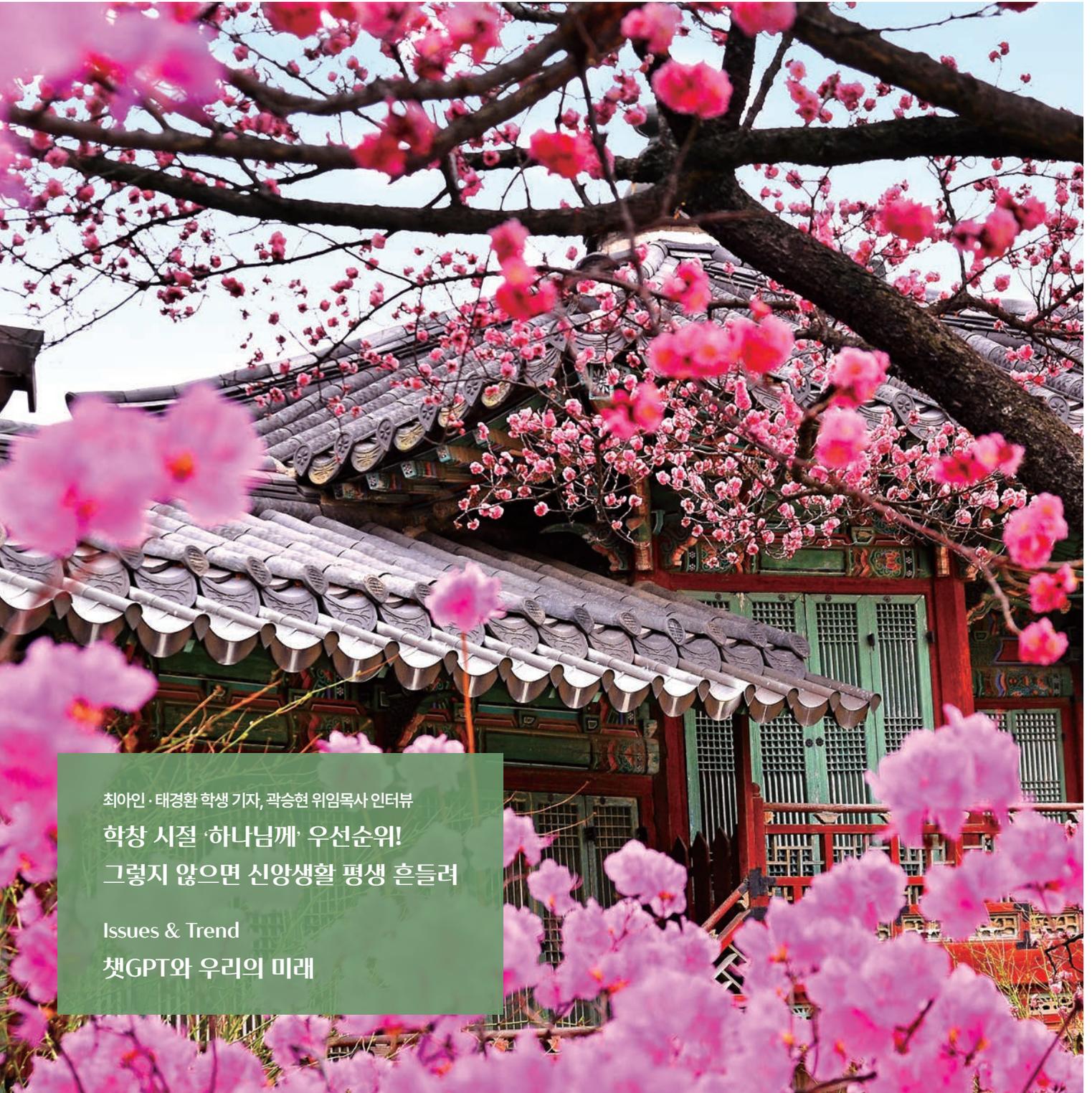


겨자씨.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2024
SPRING
VOL.50



최아인 · 태경환 학생 기자, 곽승현 위임목사 인터뷰
학창 시절 '하나님께' 우선순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평생 흔들려
Issues & Trend
챗GPT와 우리의 미래

겨자씨.

2024 SPRING
VOL.50



CONTENTS



표지사진
@space

04
VISION 24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

05
제3세계 인재양성사업 | 스네하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 이성호
당신이 메시지입니다

07
2024 Kwangsung Special

08
Interview | 광승현 위임목사
학창 시절 '하나님께' 우선순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평생 흔들려

13
**2023 선한사마리아인
성탄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14
선교지 소식 | 황남덕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16
The 희망나눔
사랑청년 1부 짝꿍교사,
성은하 권사와 이수정 집사

18
Issues & Trend

19
챗GPT | 조용호
챗GPT와 우리의 미래

22
챗GPT | 지민수
해외 시장 조사 순식간에 척척

24
챗GPT | 최경찬
인공지능이 일으킬 교육 변화의 바람

26
4월의 향기 | 김민석
그중에 제일은 '그리스도를 만남'이라

28
선교, 더 깊은 연결 | 인도네시아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33
꿈꾸는 다음세대

34
꿈담 | 영아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통로예요

35
꿈담 | 유치부
달달달, 쓱쓱쓱, 콩콩콩

36
꿈담 | 초등 1부
초등부에 입학했습니다

37
꿈담 | 초등 4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초등 4부



38
꿈담 | 중등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40
꿈담 | 고등부
고등부 수련회 스케치

42
2024 특별기획 | 임희국
'AGAIN, 1907!' ②
평양 신앙 각성 운동, 그 열매



46
이웃 교회 탐방 | 은혜의빛광성교회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혜의빛광성교회



48
이웃 교회 이야기 | 은혜의빛광성교회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50
광성드림학교 | 김정준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인

51
광성드림학교
고3의 노래

54
우리는 3040 | 우주희
조이풀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전병규, 정경희 집사님 부부

56
크리스천 경제 | 박길한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58
광성라이프호프팀 | 고영수
어둠과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 가는 공동체, 광성라이프호프팀



60
고맙습니다 | 김형수
'고맙습니다' 릴레이

62
이용주 기자의 교회 구석구석 포토에세이
거룩한빛광성교회 유아부 · 유치부

65
청년광장

66
HOT ISSUE | 강철민
인생의 길을 같이 걷는 청년들에게



68
직장 연가 | 장예지
가치 있는 제품으로 소통하는
디자이너와 지역 농산물과의
소중한 만남

70
우리 결혼했어요 | 김민석, 신나래 부부
결혼, 사랑의 지경을 넓히소서

72
함께 배워요 | 수어

73
문화 & 독자 마당

74
우리 교회 예술가 | 지성찬
산 환타지아

75
영화 | 최예준
디즈니 100주년 작품 <위시(WISH)>를 보고

76
출판 소식 | 작가가 된 최재욱 목사
『비트 주세요, 주님!』 발간

78
명작 Review | 김형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80
여행 | 최아민
나의 삶에 리프레시(refresh)와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준 대만 VISION TRIP



82
독자 광장 | 윤귀분
언제나 그리움

83
결혼사진 이벤트 | 서보연
당신에게

84
크로스로드 | 오성훈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오게 하는
통일기도운동

86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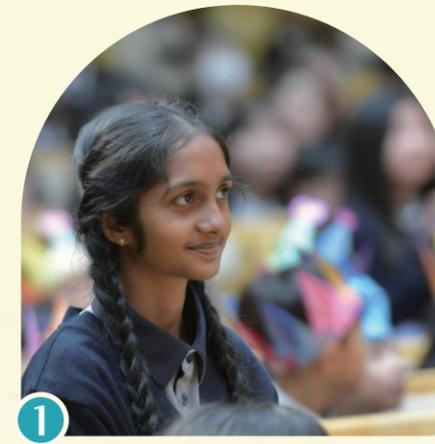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와 광성드림학교가 함께하는 제3세계 인재양성사업

제3세계 인재양성사업이란?

국가 환경과 교육 여건이 어려운 거룩한빛광성교회 선교지의 학생을 선발하여 중·고·대학교까지 학비·생활비·홈스테이를 지원하고,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그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장기 교육지원 사업



스리랑카 여학생, 스네하 광성드림학교 중등과정 1학년 입학

지난 3월 4일 광성드림학교 중등과정 1학년에 입학한 스네하. 거룩한빛광성교회와 광성드림학교는 '제3세계 인재양성사업' 1호 학생으로 스리랑카 여학생 스네하를 선발했다.



1. 광성드림학교 중등과정 1학년에 입학한 스네하
2. 현지 면접을 위해 스리랑카로 날아간 광성드림학교 관계자들과 스네하
3. 스네하 입학하던 날, 광성드림학교 관계자와 홈스테이 가정 가족들의 환영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스네하
4. 스네하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열두 가정이 홈스테이를 신청했다. 그중 첫 번째 홈스테이 가정인 광성드림학교 학부모 부부와 스네하

스리랑카

불교를 국교로 함



현재 국가부도로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등 경제 자립 기반이 취약하고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하다.



당신이 메시지입니다

헬갓 핫수림(칼의 벌판)에서 사무엘하 2:12~16

글 이성호 목사(포항을사랑하는교회)



지난 2022년 6월 영국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Cultural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2021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계층 간 갈등 수준은 무려 7개 분야(빈부, 이념, 정당, 종교, 성별, 세대, 학력)에서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사회집단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공인된 셈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인의 의식이 이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용인'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 현실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들어가는 다음세대들을 방관하는 기성세대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은 뒤, 다윗은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추대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남북으로 갈

라진 이스라엘의 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고, 양 진영은 기브온 못가를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때 남쪽 다윗의 장수 요압과 북쪽 이스보셋의 장수 아브넬이 한 가지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청년 12명씩을 내세워 서로 싸우게 하자라는 방안입니다. 이른바 '대리전'을 치루자는 겁니다. 청년들의 싸움으로 판가름내자는 것이었는데 24명의 청년 전원이 사망합니다. 서로의 머리를 부여잡고 서로 옆구리를 찌르며 죽어간 것입니다. '헬갓 핫수림'은 문자적으로는 '옆구리들의 밭'이라는 의미이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곳을 '칼의 들판'으로 명명하여 청년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 청년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허무하게 잃어야 했을까요?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남과 북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은 피를 묻히지 않고 애꿎은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겁니다. 청년들의 비극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자본이라는 힘을 가진 이들이 세운 정글과 같은 거리에서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구하라!" 하십니다. 공부에 질식하여 자살을 택하는 아이들, 가난과 차별이라는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학생들, 유력 집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회를 잃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경계를 허무는 시대적 사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경제 공동체와 같이 성공과 실패의 결과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으며, 상호 우열로 서로를 겨누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사는 종교입니다. 뽕으려 하면 모두가 잡초지만, 품으려 하면 우리 모두가 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 SPRING Kwangsung Special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8~9>



최아인 · 태경환 학생 기자, 곽승현 위임목사 인터뷰

학창 시절 ‘하나님께’ 우선순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평생 흔들려

인터뷰이 곽승현 위임목사
인터뷰어 최아인(고1) · 태경환(중2) 학생 기자
사진 영광홍 영상 실장
진행 & 정리 전영의 기자



☞ 인터뷰 차 곽승현 위임목사를 찾은 『겨자씨』 기자들



『겨자씨』 최아인·태경환 학생 기자가 곽승현 위임목사를 인터뷰했다. 두 기자는 곽승현 위임목사에게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는지 등 사적인 질문에서부터 크리스천 청소년의 신앙적 고민까지 폭넓게 질문했다. 이에 곽승현 위임목사는 청소년의 시선에 맞춰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했다.

☞ 『겨자씨』 최아인·태경환 학생 기자의 곽승현 위임목사 인터뷰.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은 누구인지', '목사로서 힘든 일은 무엇인지' 학생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정성껏 사례를 들어 답변하는 곽승현 위임목사

최아인·태경환 기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곽승현 위임목사: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학생 기자들과 인터뷰한다고 생각하니 다른 때보다 더 설레고 긴장됩니다. (웃음)

Q 태경환 기자: 제가 먼저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도 월급을 받으시나요?

A 곽승현 위임목사: (웃음) 경환 기자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생활비, 경환 기자님의 학원비, 용돈 등은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죠. 저도 자녀가 셋인 한 집안의 가장이고,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요. 저 또한 교회에서 매달 목회자 사례비를 받아요. 그것으로 생활비도 하고,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외식을 하기도 해요.

Q 최아인 기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왜 그 음식이 가장 좋으세요?

A 곽승현 위임목사: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하는데, 특히 토마토 스파게티를 즐겨 먹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버무려 풍미를 가득 입은 스파게티가 참 맛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고향 제주의 토속 음식이나 회

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스파게티를 더 좋아해요.

Q 태경환 기자: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A 곽승현 위임목사: 제주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신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때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와 저는 동갑내기 교회학교 교사, 청년부 임원, 찬양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친구가 되었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가 되어 올해로 결혼 25주년을 맞이했어요.

Q 최아인 기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A 곽승현 위임목사: 예전에 저는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수천 곡의 찬양이 들어 있는데, 최근에는 '아 맞다'라는 곡이 참 좋아요. 이런 가사예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 세월에 묻혀도 현실에 갇혀 /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집에서 1평 남짓한 드레스룸이 제 기도실이에요. 하나님을 조용히 만



날 수 있는 최고의 데이트 장소죠. 기도실에서 3번이고 4번이고 부르는 찬양이 '아 맞다'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 가득 따뜻함과 기쁨이 임해요.

Q 태경환 기자: 수련회 때 제가 방언 기도를 했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방언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몇 살 때 방언을 받으셨어요?

A 광승현 위임목사: 중3 때입니다. 그때 방언 기도를 하는 제가 무척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한편으론 어색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그러던 신앙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고1 겨울 수련회였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았고, 그런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 두 세 시간씩 방언 기도를 했고,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참 좋았어요. 방언의 은혜는 참으로 커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힘들지 않아요. 경환 기자님도 방언 기도를 자주 시도해 보세요.

Q 태경환 기자: 목사님이 되셔서 힘든 일이 없나요?

A 광승현 위임목사: (웃음) 힘든 일이 있죠! 무엇보다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고등부에서도 성경 암송대회, 제자훈련, 수련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하나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수없이 모여 회의해요. 때론 의견 충돌로 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선생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아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축·교육·선교·섬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을 펼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 주일예배 인원은 매주 7,500여 명으로 집계돼요. 7,500여 명의 교인들의 성격이 다 똑같을까요? 여행을 가더라도 '무작정 떠나자.'라는 사람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듯 교인들의 생각은 각각각색이죠.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Q 최아인 기자: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A 광승현 위임목사: 제가 다니던 제주영락교회에서는 매년 8월 '문학의 밤'을 개최했어요. 문학의 밤은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노래, 연주, 연극, 콩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해 끼를 발산하는, 당시로서는 가장 힙한 청소년 문화 축제였어요. 각 교회 중고등부는 더 멋진 문학의 밤을 열기 위해 서로 경쟁했고, 제주 지역의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문학의 밤을 통해 서로 교류했어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행사였죠. 고등부만 180여 명 모일 정도로 영락교회 문학의 밤은 성대했어요. 제가 고등부 회장을 맡았을 때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석 달 전부터 매일 모이다시피 하며 문학의 밤을 준비했어요. 연습에 몰입하다 보면 밤이 되기 일쑤였고 배가 고파 우리는 교회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냉장고를 이리저리 뒤져 먹을 것을 찾아내곤 했어요. 아~ 지금도 문학의 밤막이 오르던 그 순간의 그 떨림이 생생합니다. 학창 시절의 교회 활동 중 문학의 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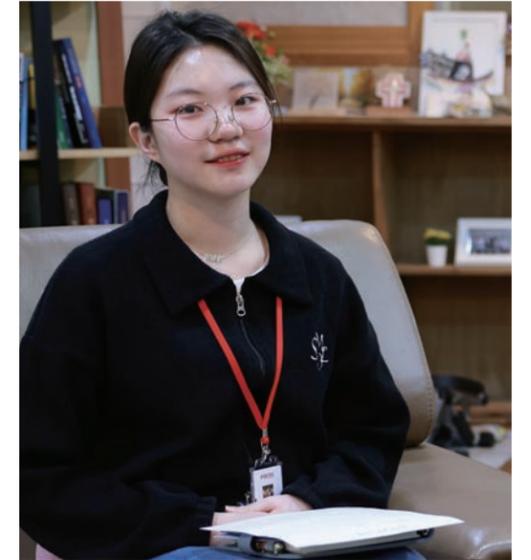
Q 태경환 기자: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은 누구입니까?

A 광승현 위임목사: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디도입니다. 대단한 장군이고, 정치가고, 음악가였던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다윗을 본받고 싶어요. '디도' 알아요?

성경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지요. 바로 그 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일에 대해 고민하다가 디도에게 "네가 도와줘야겠다."라고 말하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디도는 겸손했고 바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디도가 좋아 그를 연구하고 논문도 썼어요.



수련회에서 방언을 체험한 태경환 학생 기사는 광승현 위임목사에게 방언에 대해 질문했다



시험 기간 중 '주일예배 참석'과 '시험 대비 학원 족집게 수업'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크리스천 청소년의 처한 현실을 토로하는 최아인 학생 기자

Q 최아인 기자: 중고등부의 고민 중 하나는 시험 기간 중 주일예배 참석입니다. 시험 기간 중 학원에서 준비해주는 족집게 수업은 시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A 광승현 위임목사: 제가 중고생이었을 때도 이런 고민은 늘 있었어요. 시험에 대한 압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걸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해요. '주일예배'와 '학원', 이 두 개를 놓고 선택을 고민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발생해요. 대학에 가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해 가정을 꾸린 후에도 '주일예배'를 고민하게 하는 삶의 큰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평생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Q 최아인 기자: 크리스천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 비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A 광승현 위임목사: 공부 시간 부족의 원인을 교회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6시에 일어나면 크리스천은 5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자면 12시까지 공부해 부족한 시간을 보완하는 지혜



« 광승현 위임목사와 김창욱 강연가. 제주영락교회 친구인 두 사람은 고교 시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광승현 위임목사는 청소년들에게,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며 씨를 뿌리고 끊임 없이 기도해나갈 것을 당부한다

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서 죽집게 수업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시험에 대한 팁을 얻는데 저는 그러질 못해 불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시간에 제가 더 집중하여 공부하여 죽집게 수업을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Q 태경환 기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저는 시험을 잘 보았어요. 친구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평소 그 친구의 실력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친구는 하나님을 몰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시험 때 늘 함께하실까요?

A 광승현 위임목사: ‘기도’에 대해서 좀더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와준다는 의미를 불로소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그런 전제를 내려놓아야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기도를 했고, 안 했고’로 추론하는 자세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에

요. 혼자만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은 채 혼자 소원을 늘어놓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들은 씨(노력)도 열심히 뿌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Q 최아인 기자: 거룩한빛광성교회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광승현 위임목사: 인생을 좀 길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 친구 중에 김창욱이라는 유명한 강연가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랑 저는 저녁만 되면 기도 모임을 했어요. 우리 둘 다 공부하는 사실 못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학창 시절에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지금 창욱이는 스타 강연가가 되었고, 저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고생 때 지금 당장의 성적 때문에 시험 기간에 교회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3 선한사마리아인 성탄절 프로젝트

성탄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역



다일공동체 밥퍼사역 지원



작은교회 12곳 지원



전국여교역자안식관 난방비 지원



해피월드복지재단 지원



홀사모선교회 지원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성탄절 헌금을 흘러보낼 대상자를 지정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19,022,250원	
	다문화			
	노인			
	노숙인			
	장애인			
	청년	청년창업 지정		780,000원
	환우	환우 가정 지원		4,404,000원
작은교회	작은교회 지원	8,000,000원		
교인 지정		16,193,000원		
선교사, 형제교회		18,532,000원		
타 교회, 타 교인 지정		8,610,000원		
공휴일 구제 사역		63,039,080원		
합계		138,580,330원		

2023 선한사마리아인 성탄절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를 통해 성탄절 헌금 전액 (1억 3858만 330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보냈습니다.



후쿠오카동아시아평화센터 개원식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글 황남덕 선교사(일본)

저는 2019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현재 후쿠오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본 교단과 2011년도에 선교협약을 맺은 일본그리스도교회(Church of Christ in Japan)에서 에큐메니칼 선교동역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명은 양 교단 차원에서의 교류와 이해증진을 통하여 공통의 선교과제를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일에 후쿠오카동아시아평화센터를 설립하여 여러 선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청년평화학교(이하 평화학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회 평화학교는 2019년에 8월 12일~16일에 오키나와에서 “오

키나와에서 생명을 위한 평화, Peace for Life in Okinawa” 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한국 학생 3명, 일본 학생 4명, 중국 학생 1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참가자가 적었지만, 오키나와의 역사와 현실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과 평화공원과 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현장 탐방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국제연대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의 여파로 평화학교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3년 8월 15일~18일에 제2회 평화학교를 한국의 제주 강정마을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학생 8명, 일본 학생 9명, 홍콩 학생 1명이 참가하여 평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평화학교

는 앞으로 매년 열릴 예정으로 2024년에 한국, 2025년에 대만에서의 개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학교의 목적은 아시아의 학생들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함께 모여서 평화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아시아가 당면한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고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한편 저는 2022년 4월부터 세이난학원대학의 신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본 대학에서 평화학교 참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고 일본의 타 대학 학생들도 앞으로 더욱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화학교는 기독교인 학생들만 참여하는 과정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타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경우는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보다 오래되었으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선교적으로 진지한 성찰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의 수가 적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은 일본의 상황에서 일본 학생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 기독교에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학교를 중심으로 한 후쿠오카동아시아평화센터의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1



2



3

- 1.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청년평화학교의 참가자 단체사진
- 2.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청년평화학교의 현장탐방 시간
- 3.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청년평화학교의 강의 시간



제주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청년평화학교의 현장탐방 시간

짜꿍이 있어서 기쁨 가득, 행복 만땅 사랑청년 1부 짜꿍교사, 성은하 권사와 이수정 집사

글 전영숙 기자



« 사랑청년부 친구들과 대예배 봉헌송을 하기도

사랑 고백처럼 달콤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매주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랑 고백에 행복에 겨운 이들이 있다. 마주한 얼굴에 미소 가득한 성은하 권사와 이수정 집사는 짜꿍교사다. 사랑부를 섬기는 교사들은 1명, 또는 2명의 아이들을 전담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이 함박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빨리 듣고 싶어졌다.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솔직히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짜꿍교사예요. 이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즐겁고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아이들 얘기가 나오자 성 권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사랑부 섬기는 일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편견임을 그리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됐다. 주변에서 짜꿍교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힘들겠다,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자신들은 ‘너무 재미있다.’는 반응. 새로이 섬기

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해줄 말이 없었다. 그저 와서 같이 있으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금방 느낄 수 있다고. 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할 것도, 준비할 것도 없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것. 물론 아이들이 짜꿍교사들의 마음은 다 알아주지는 않는다. 질문에 잘 응대해 주지도 않고 무뚝뚝한 편이다. 반응 없음에 서운할 만도 한데 성 권사는 그저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난다.

“사랑부 친구들은 어느 순간 알은 체를 해요. 이름도 불러 주고 악수 하자고 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다른 조 친구인데도 멀리서 달려와 제 이름 부르며 알은 체를 하는데, ‘여기 꽤 오래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모르는 것 같은데 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손으로 하트 만들어 날려주고, 얼마나 예쁘게 웃어주는데요. 그리고 ‘좋다, 싫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바로 표현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 따라 즉각 반응해주면 돼요.”



1. 짜꿍 친구들과 함께 예배 후 활동 중인 성은하 권사(왼쪽이 다영이, 오른쪽이 유나)
2. 사랑부 아이회 때 아이들과 신이난 성은하 권사

그렇다고 모든 것에 ‘오냐, 오냐’ 하는 일은 없다. 장애를 가졌다고 불쌍하게 보는 이들도 있는데 불쌍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이라고 못을 박는 이수정 집사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낸다. 부모님들이 왜 혼냈냐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도 짜꿍교사의 역할이라고. 진정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 품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따끔하게 일러주는 것을 자처하기란 쉽지 않으니까.

성 권사를 행복의 나라로 인도한 것이 이 집사다. 이 집사가 2년여의 구애 끝에 얻어낸 성과라는데 성 권사가 2019년 임직을 받으면서 남편과 함께 섬길 곳을 찾던 중 이 집사가 생각난 것.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이 아니었나 싶다. 선한 목자 교육을 받으면서 돌봄방에서 성 권사를 처음 만난 이 집사는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들이 성 권사를 따르는 모습에 사랑부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제가 그동안 내뱉은 말이 헛되지 않아 감사할 뿐이었죠. 게다가 부부가 함께 1+1으로 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권사님이 작은 교회 섬기자고 손 내밀 때 무조건 오케이하게 되더라고요.” 섬기는 일도 품앗이가 되는 모양이다. 게다가 알까지 낳기도 한다. 성 권사가 알파 리더로 섬기면서 교육자에게 사랑부 짜꿍교사를 권

했고, 기꺼이 와 준 것. 성 권사가 5년차, 이 집사가 8년차인데, 사랑부 짜꿍교사들이 기본 5년은 섬기는 데는 분명 그 이유가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성 권사와 이 집사의 얼굴에서 느껴졌다.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라면 힘들어도 기쁨으로 기억되는 듯... 신기한 일이다. 처음 다영이, 유나와 짜꿍이 되었을 때 빠르고 하이 톤인 다영이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고, 발랄한 다영이와 달리 조용한 편인 유나였기에 상반된 성격에 어찌해야 되나 싶었다는 성 권사. 하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 신나게 울동하고 노래하는 다영이 모습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너무나 예쁘게 전달하는 유나 아버지의 SNS 내용을 보며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낀다고.

사랑청년 1부의 악동, 범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집사는 범수가 다른 반이어도 자신만 바라보고, 같은 반이 된 순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며 좋아하고, 지하철 노선도를 달달 외우면서도 말씀 암송하자는 말에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에 ‘그래서 힘들지 않다.’고 미소 짓는다.

짜꿍은 외사랑이 아니다. 서로 교감하며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둘 다 행복하다.



1. 더위로 고생 많은 여름 수련회였지만 사랑청년부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2. 3년 동안 짜꿍이었던 동현이와 함께한 이수정 집사

ISSUES & TREND

I 챗GPT

챗GPT와 우리의 미래

글 조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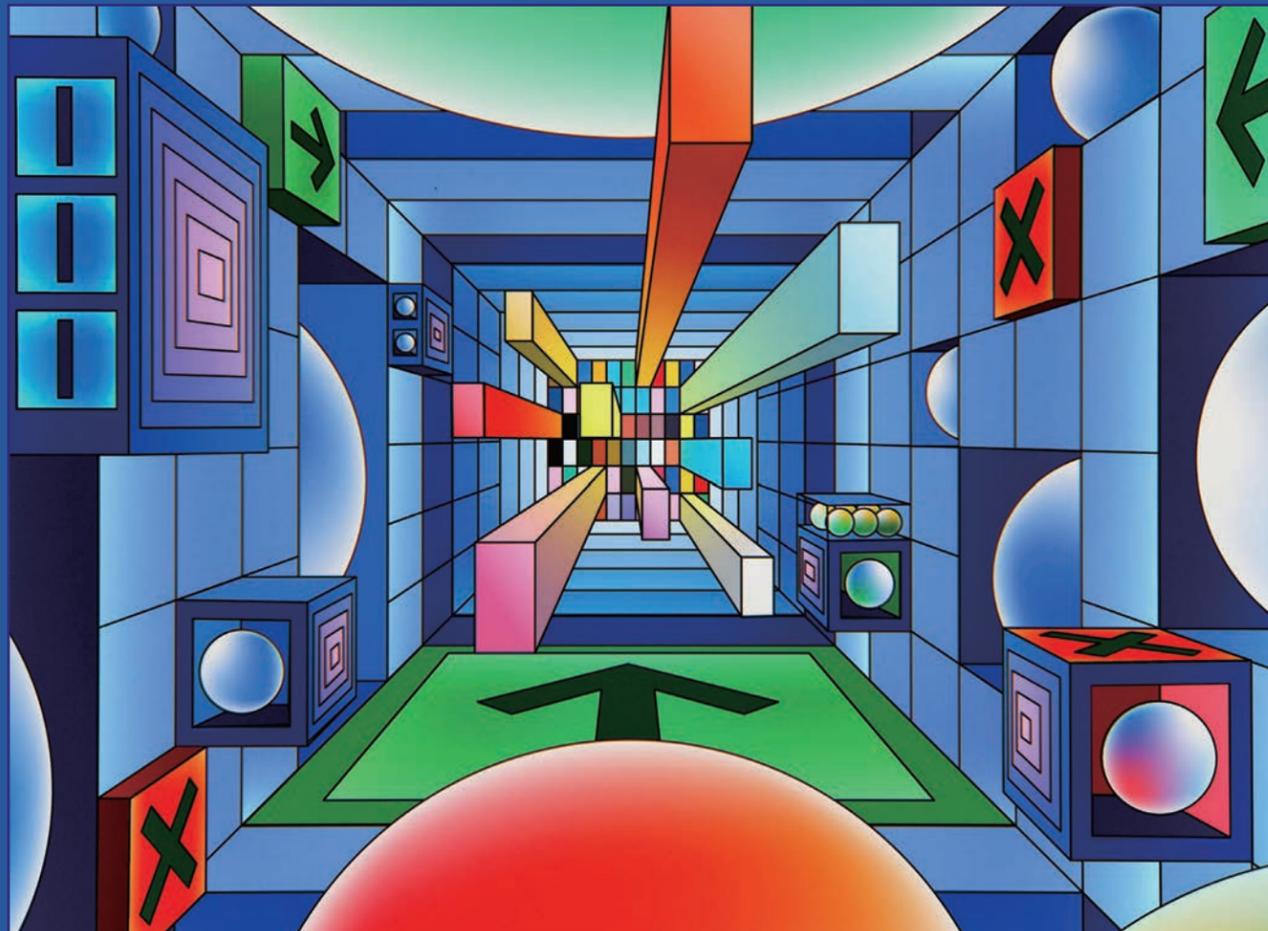
II 챗GPT 현장 사용 사례

해외 시장 조사 순식간에 척척

글 지민수

인공지능이 일으킬 교육 변화의 바람

글 최경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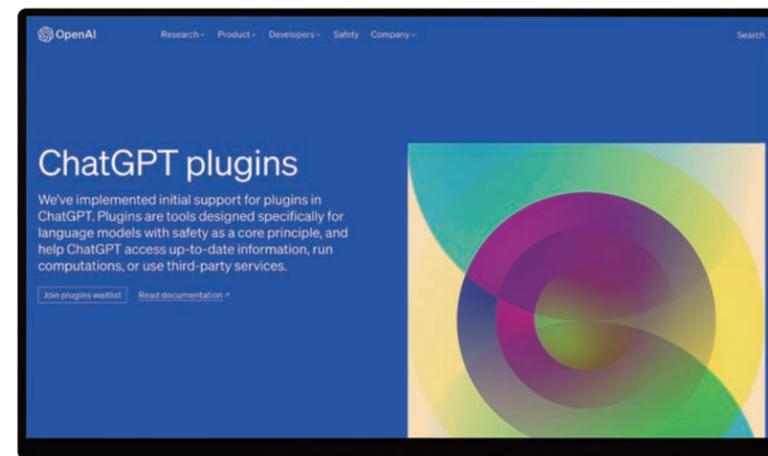


챗GPT와 우리의 미래

글 조용호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에 관한 것입니다. 모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 500대 대기업 가운데 92%가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교육, 심지어는 영적인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목표

'챗GPT'는 OpenAI에 의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 GPT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술은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의 한 분야에서 큰 혁신을 이루었으며,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챗GPT는 특히 대화형 AI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으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적인 특징은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능력입니다. 챗GPT는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과 주제에 대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챗GPT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맥락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의도와 맥락 파악, 그에 맞는 응답 생성

챗GPT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유연성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복잡한 학술적 질문, 심지어는 창의적인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챗GPT가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서,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 챗GPT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챗GPT는 맞춤형 학습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제에 대해 질문할 때, 챗GPT는 그들의 수준에 맞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죠.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윤리적 고민을 동반합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칠까요? 아니면, 일자리 소멸, 개인정보의 침해와 같은 부정적

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종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도 챗GPT와 같은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교적 문장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챗GPT는 서로 다른 신앙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와 메시지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앙 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장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공통된 가치와 메시지는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의 출발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챗GPT는 종교 교육과 영적 탐구 과정에서도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종교적 문장과 가르침에 대해 질문할 때, 챗GPT는 해당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응답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영적 지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가 다양한 종교적 관점을 탐색하고, 그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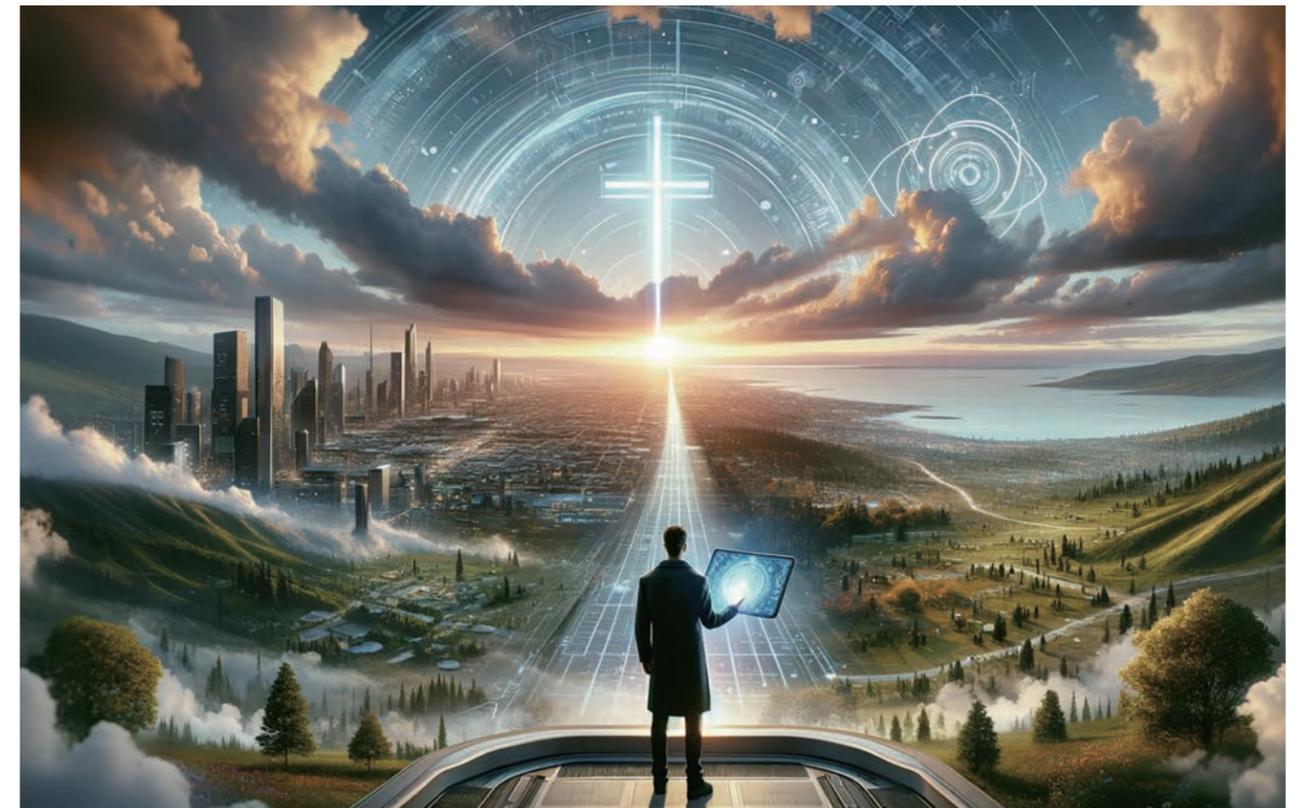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신념과 가치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를 촉진하고, 깊이 있는 영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챗GPT가 몰고 온 미래는 분명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성과 영적 가치를 잃지 않는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챗GPT와 우리의 미래'를 그려줘' 라고 주문하자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챗GPT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기독교적인 느낌으로 그려줘' 라고 주문하자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챗GPT 현장 사용 사례

해외 시장 조사 순식간에 척척

글 지민수(칸타코리아 선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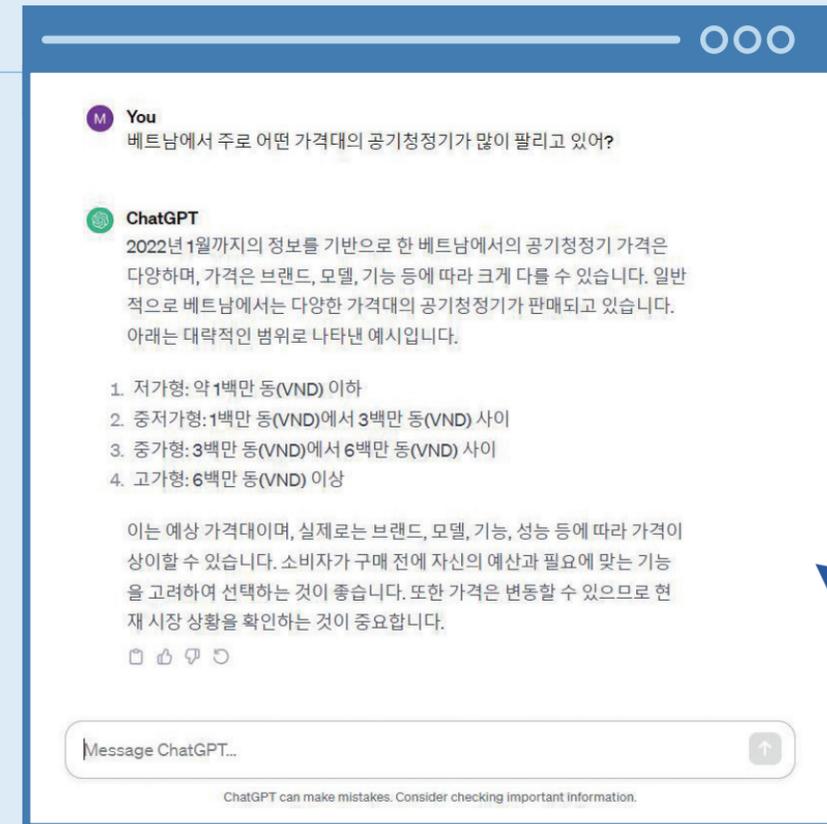
저는 외국계 리서치 회사에서 리서치 연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리서치 연구원은 빅데이터 및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직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문 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조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의 여론 조사 등도 리서치 연구원이 담당하는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제가 리서치 연구원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한 마케팅 프로젝트 참여 시,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전 해외 시장 조사를 주로 담당할 때입니다. 이때 저는 알지 못하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생성 AI(Generative AI)인 챗GPT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합니다.

작년 말에는 국내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베트남에서 공기청정기를 출시하기 전, 현지 고객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제품의 개선점과 보완점을 찾는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챗GPT를 활용하여 베트남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브랜드, 사이즈, 가격대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베트남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제품 디자인 평가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볼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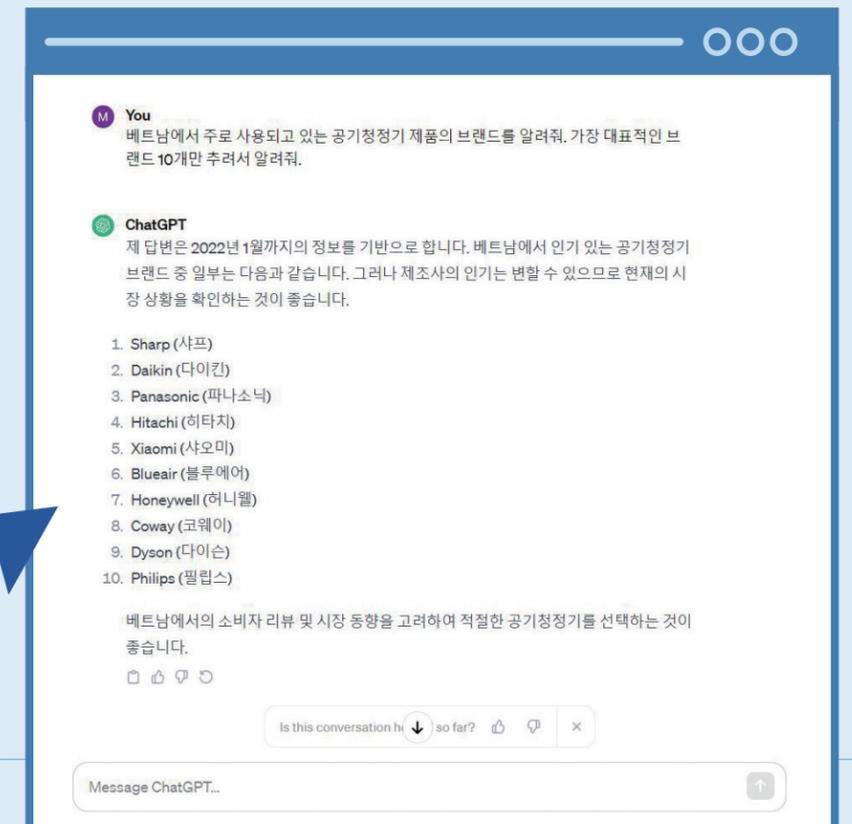
챗GPT는 이전에는 한정적인 정보 제공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해외 시장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화형 AI의 특성 덕분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챗GPT가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에서 챗GPT의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챗GPT는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래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데이터 편향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주요 기술 중 하나로서, 노동 시장에서 AI를 통한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 활용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의 공기청정기 정보를 알려주는 챗GPT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공기청정기 10개를 묻자 순식간에 10개 브랜드 정보를 제공하는 챗GPT



챗GPT 현장 사용 사례 인공지능이 일으킬 교육 변화의 바람

글 최경찬(광성드림학교 수학과, 정보과 교사)



성경에서 보혜사(保惠師) 성령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마다, 보혜사가 간호사, 회계사 같은 특별한 직책 같아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설교 시간에 보혜사는 '돕는 손길,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교사는 성령님처럼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몸은 하나이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너무 많아서 성령님을 따라가기에는 어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계에도 성령님처럼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물어보든 가르쳐줄 수 있는 인공지능, 특히 언어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등장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무언가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구글(Google)에서 검색했습니다. 도움은 많이 되었지만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문적인 글이 섞여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Youtube)가 유행하면서 좋은 교육 자료가 많이 올라와서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지금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많은 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내용과 수준의 영상을 찾기가 어렵고, 제작에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챗GPT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한결 더 쉬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분량과 수준을 결정하여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사가 챗GPT를 사용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 다음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저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고 가르쳐줍니다. 챗GPT는 어려운 명령어가 필요하지 않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알아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사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2학년 정보, 3학년 미적분, 작년 1학기 인공지능 캠프에서 예체능 분야인 음악, 미술, 미디어, 체육, 과학 등에 활용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명제를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이 수행평가로 여러 가지 명제를 엮어서 하나의 큰 수수께끼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제작한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 교사 점검했지만 교사가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챗GPT를 이용하여 논리를 점검했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 시간에는 파이썬(Python)을 학습하면서 파이썬 문법에 질문이 생긴 경우, 또는 수행평가로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과제를 실시하던 중, 버그가 발생했을 때 보조교사로서 챗GPT를 사용했습니다. 전에는 게임 만들기 수행평가를 진행하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여 분신술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질문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적분 수업에서 미적분을 이용한 동화 쓰기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5명의 학생이 미적분에 나온 개념을 토대로 하여 릴레이 글쓰기 형식으로 동화를 작성하면서 4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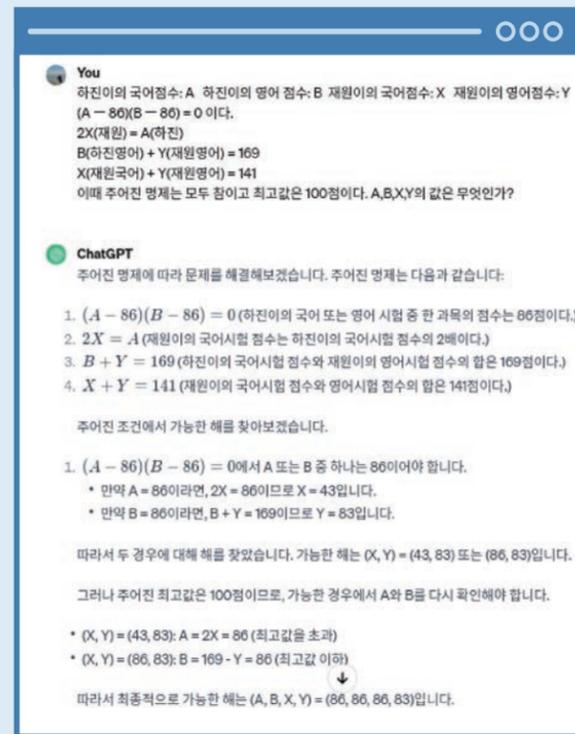
는 챗GPT가 앞선 3명의 학생이 쓴 이야기를 읽고 이어서 쓰도록 했습니다.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계산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맡아 해결하여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 합성곱 인공지능망과 구글의 티처블 머신을 이용한 자세 교정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식물의 병충해 여부를 판독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사용자가 만든 멜로디를 듣고 자동으로 오케스트라 편성을 만들어 주는 음악 인공지능 개발 등 다양한 교육 사례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램프의 요정 알라딘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라고 불리는 환영 효과로 인해,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요구조건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는 엉뚱한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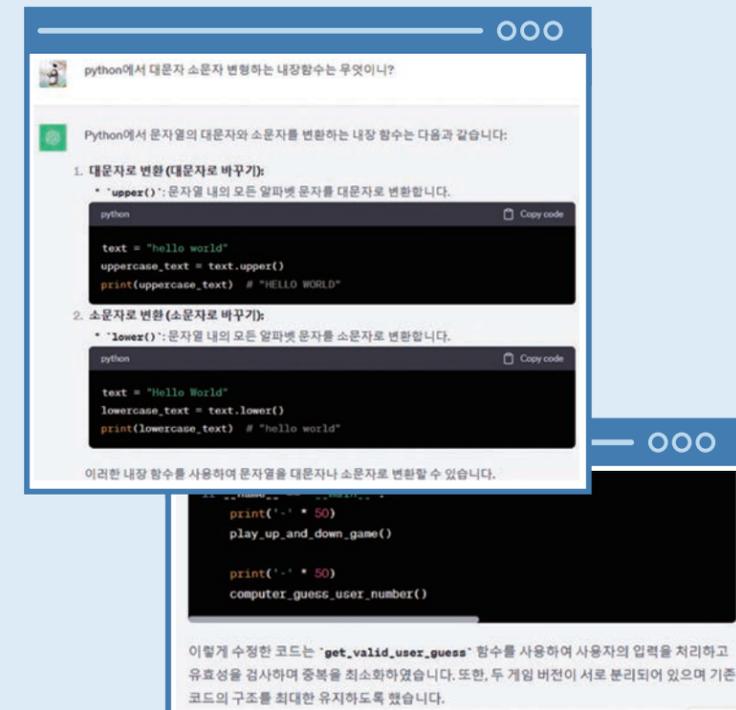
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쓰기 과제에서 학생들이 글을 쓰지 않고 인공지능에 맡겨버리고 그대로 제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발표용 프레젠테이션도 인공지능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사용을 금지하는 교과 과정이나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시대의 변화를 거스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물결을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1시간 동안 짜야 하는 코드를 컴퓨터는 10초 만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그전에는 1시간 이내에 만들 수 없었던 더 복잡하고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과제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전에는 사칙연산을 잘하기 위해서 주산 학원에서 하루 종일 주판을 툭툭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모두가 주판을 내려놓고 컴퓨터로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육 분야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이에 올라타서 새롭게 변화하길 소망해봅니다.



고등학교 수학 '명제 단원'

고등학교 정보 '파이썬(Python) 문법'



고등학교 정보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그중에 제일은 '그리스도를 만남'이라

글 김민석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 가족사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교구와 중보기도위원회를 담당하는 김민석 목사입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벌써 7번째 겨울을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2017년 12월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하여 3년간 청년부 사역 후 목회 비서로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부터 9교구 담당 목사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째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저에게는 참 특별합니다.

첫 전임 사역, 첫 교구 사역, 목사 안수, 결혼과 출산까지! 목회자의 일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우리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청년부, 목회 비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의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문화사역위원회, 제3 교육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중보기도위원회 사역은 다양한 목회 경험과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는 찬양 가사 그대로 '아버지 품 같은 교회, 어머니

손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훈련 시키셨고 큰 축복과 은혜까지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큰 기쁨과 행복, 감사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된 만남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와 사람은 물론이고 좋은 취미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렉 기타 연주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했습니다. 지금도 일렉 기타를 잡을 때면 여전히 행복합니다. 또 저는 오토바이를 탑니다. 군대에서 체게바라의 '모터 싸이클 다이어리'를 읽고 오토바이 여행을 꿈 꾸었습니다. 대학생 때 오토바이에 텐트, 버너, 쌀, 고추장, 참치, 김 등을 챙겨 약 3주간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렸습니다. 길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불렀던 찬송, 고요한 텐트에서 나눴던 하나님과

의 깊은 교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취미는 무에타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일렉 기타, 오토바이, 무에타이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무에타이"라

이 3가지는 제가 천국에 가서도 하고 싶을 정도로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성경 묵상 다음으로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익하다 한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 중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체,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제 안에서 율법에 메인 종교적 열정을 거두어가고, 감정에 휘둘리는 믿음을 절개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서 행복을 누리는 차원을 넘어 특별히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제 심령에 기쁨과 행복은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감각을

만족시키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 안에 담긴 기쁨과 행복이 늘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예수님과 만남은 그 어떤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며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누리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일상의 기쁨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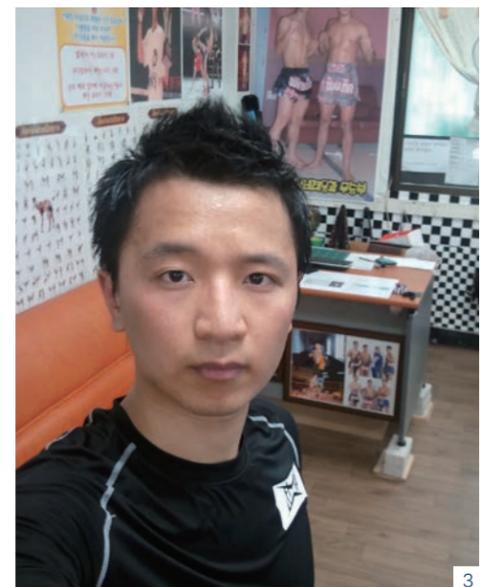


1

- 1. 9교구 나들이
- 2. 제주도 여행 중
- 3. 운동 후 한 컷



2



3

거룩한빛광성교회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글 송화섭 집사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일까?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성이 높은 나라일까?

그들의 문화는? 종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 대한 궁금점과

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나를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일정 2024년 2월 28일~23일(5박 6일)

장소 인도네시아 메단(김상철 선교사 사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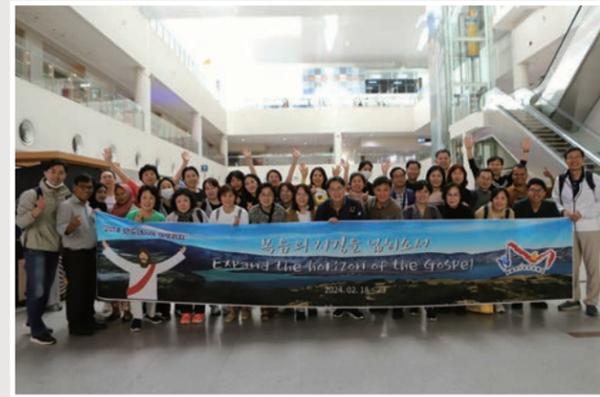
인원 광승현 위임목사 외 29명

주요 사역

꾸알리티대학교 한국인의 날 문화사역,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 수술비 지원,
음식·미용·풍선아트·레크리에이션·땅 밟기 사역 등



꾸알리티 대학교



1 도착

인도네시아는 인도,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더불어 이슬람 국가로 타종교에 대한 거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없으나, 포교 활동은 금지된 나라였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이틀 뒤였다. 물건 검색부터 트집은 잡히지 않을까, 물품을 압수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계속해서 일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순조롭게 인도네시아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2 K-culture의 인기

내가 생각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아무리 K-culture가 인기라고 하지만 반응이 미적지근할 줄 알았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행사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학생들의 열정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잘은 모르더라도 배우고 즐기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문화의 힘이 굉장하다는 것을 느꼈다.



3 한복 문화 체험

우리가 준비해간 문화 체험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바로 한복 문화 체험이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멋이 들어간 의상이고, 형형색색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옷이다. 학생들이 앞다퉈 한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과 서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한국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



4 숨카도쉬팀의 아름다운 몸짓

오후엔 뜨거운 햇살이 한풀 꺾였지만 워낙 습하고 더운 날씨에 우리는 금방 지쳤고, 옷은 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약조건 속에서도 거룩한빛광성교회 워십팀인 숨카도쉬팀이 나와 아름다운 몸짓을 선보였을 때, 그들의 환호는 지금까지 들어보았던 그 어떤 소리보다 열정적이고 뜨거웠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난 뒤, 구름 떼처럼 몰려드는 학생들 사이에서 워십팀의 인기는 굉장했다. 서로 같이 사진을 찍겠다고 앞다퉈 줄을 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5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하이라이트는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이다. 게임 참가자들은 술래가 뒤돌아서 있을 때, 재빠르게 뛰어나가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스릴과 전율이 넘치는 게임에 모두가 속 빠졌던 시간이다.



6 마지막 날

대학교에서의 사역은 너무나도 짧았다. 훌쩍 지나간 시간에 아쉬워한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단체 촬영을 하고 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저녁 식사까지 대접해주시면서 우리를 환영해주신 대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했다.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벨벨교회



8 팔찌 사역

벨벨교회에서도 대학교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준비해 간 문화 사역을 진행했는데, 꾸알리티 대학교 사역과의 차이는 팔찌 사역과 미용 사역이 추가된 것이었다. 팔찌 사역의 경우 너도나도 가지고 싶어해서 우리들이 착용한 팔찌까지 내어주었고, 그 팔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읊어주며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다.



10 안수기도

마지막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벨벨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안수기도 받는 장면은 단연코 이번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안수기도 받을 때 그들이 토해내는 말은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언어임을 알 수 있었다.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꼈다.



7 벨벨교회로 가는 길

모든 것을 쏟아낸 다음 날, 육신을 짓누르는 피곤을 어깨에 이고 벨벨교회로 향했다. 벨벨교회로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포장된 도로로 보여지지만 군데군데 싱크홀도 많았고,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곡예하듯 지나갈 때마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순간도 많았다.



9 미용 사역

한국처럼 머리를 정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미용 사역은 빛을 발했다. 덩수룩한 머리를 가진 남성들의 머리를 정돈하니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이구나.' 깨달았다.

달람예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짧은 사역이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문화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성경 컬러링

도안을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만의 컬러링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완성작을 사진 찍어 『겨자씨』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우수작 3점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선물합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선악과

꿈.담

꿈을 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다음세대

꿈꾸는 다음세대

학생

꿈을 담는 가정

가정

꿈을 지켜주는 담장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꿈꾸는 다음세대

꿈꾸는 꼬마 (꿈꼬)

영아(0~3세)
 유아(4~5세)
 유치(6~7세)

꿈꾸는 어린이 (꿈린이)

초등학교
 1~6학년

꿈꾸는 세대 (Dream Generation, 꿈젠)

꿈젠 중등부

14세~16세
 중학생

꿈젠 고등부

17세~19세
 고등학생

≡ 꿈.담 ≡ 영아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통로예요

글 정은숙 기자

나는 복음의 통로

영아부는 0~36개월의 아가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박진희 전도사와 함께하는 영아부 2024년 표어는 '나는 복음의 통로예요!' 이다.

영아기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시기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부모에게도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인식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교육도 예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공과 시간에 아빠들이 투박한 손으로 스티커를 떼어주고 자녀와 함께 만들고 붙이는 모습은 더욱 은혜롭다.

울다가 웃다가

영아부 예배는 무척이나 다채롭다. 말씀에 반응하는 영아들의 모습은 각각각색이다. 교사들은 영아들이 오감을 확장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한다. 시시각각 울다가 웃다가 하지만, 말씀 듣는 초롱초롱한 눈빛, 엉덩이를 흔들며 찬양하는 모습, 아장아장 걸어와 예물 드리는 손길, 웅알웅알하며 말씀 암송하는 모습은 귀엽기만 하다. 교사들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아가들을 귀한 예배자로 세우는 사명감으로 영아부와 아가들을 섬기고 있다. 윤희진 부장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고 다음세대의 큰 일꾼이 될 아가들이 더없이 소중한하다." 고 말한다.



≡ 매달 셋째 주일 생일잔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남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 부활절, 추수감사절, 어린이 주일 등 절기마다 오감 활동을 통해 말씀을 즐겁게 배우는 영아부

≡ 꿈.담 ≡ 유치부

달달달, 쓱쓱쓱, 콩콩콩

글 정은숙 기자

말씀 암송

꿈담 유치부의 말씀 암송 활동이 봄꽃처럼 화창하게 피어나고 있다. 뚝뚝뚝, 또박또박 말씀을 암송하는 유치부는 정말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 매월 마지막 주일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말씀 암송에 성공하면 '암송배지'를 상품으로 받는다.

암송배지는 말씀 암송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것으로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말씀을 모두 암송한 학생은 1년 동안 12개의 배지를 모을 수 있다. 가방에 매달 수도 있는 말씀 키걸이 배지를 모으는 재미에 푹 빠진 유치부. 교사들은 유치부 학생들이 말씀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12개의 암송배지도 모두 모으는 쾌거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 노란 가방 줄에 말씀 배지 4개를 달고 기쁨의 V자를 그리는 어린이



≡ 한 달 동안 열심히 암송한 말씀을 발표하는 유치부

가정교회학교

주일 말씀을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 공과 말씀을 복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가정교회학교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교회학교 학습은 부모와 어린이, 가족이 함께 손잡고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함이다. 교역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입체적으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설교를 준비하고, 바로 이어 공과 학습 활동에서 교사들과 함께 이를 복습한다.

유치부 어린이들의 순수함은 흰 도화지 같다. 말씀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운 색을 칠해 '믿음'이라는 작품이 완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현주 전도사는 "달달달 말씀을 암송하며, 믿음이 쓱쓱쓱 자라고, 믿음의 걸음을 콩콩콩 내디디며 성장하는 유치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한다.



≡ 대형 하트를 이용해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정현주 전도사

≧ 꿈담 ≦ 초등 1부

초등부에 입학했습니다

글 최예준 학생 기자



≡ 새로 오신 김시은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초등 1부



≡ 신나게 예배 드리는 초등 1부 아이들

얼마 전까지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은 어느새 초등 1부가 되었고, 지난 3월 초등 학교에 입학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2년 동안 맡게 된다.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할 2년을 기대한다. 선생님들은 초등 1부 친구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매주 주일에 배 시간마다 공과 반별 모임을 진행하고, 매달 말씀을 주며 외울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초등 1부 아이들의 한글 공부를 위해서 자신의 반을 직접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초등 1부 선생님들은 사랑과 헌신, 기도로 아이들과 2년 동안 함께 할 것이다. 초등 1부에는 보조교사도 많다. 중학생부터 청년부까지 많은 선배들이 보조교사를 자원해 초등부를 섬기고 있다. 아이들은 그런 보조교사를 친구처럼 마냥 좋아한다. 초등 1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 아이들, 그들을 힘껏 품어주시는 김시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모두 함께 어우러져 힘차게 달려가는 초등 1부의 내일이 기대된다.

≧ 꿈담 ≦ 초등 4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초등 4부

글 최예준 학생 기자



≡ 초등 4부 모두 모여 찰칵!



≡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초등 4부

요즘 예수님의 사역과 사랑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느끼며, 실천하고 있다는 초등 4부를 가보자!
지난 겨울, 초등 4부는 '새사람, 하나님의 선포다.'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가졌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었다.
겨울성경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 부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회를 통해 초등 4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초등 4부는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배요섭 전도사님은 말씀하신다. 봄처럼 화창한 초등 4부 아이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꿈담 | 중등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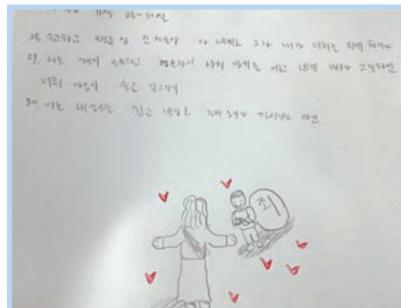
글 태경환 학생 기자

2024년 중등부의 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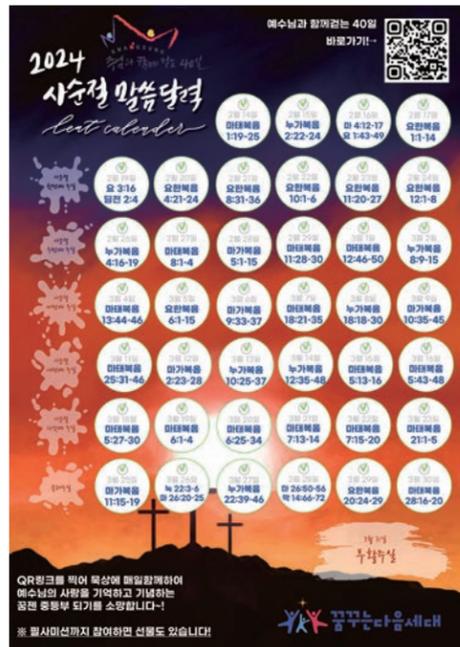
Worship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등부	Bible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중등부	Pray 기도로 무장하는 중등부	Challenge 도전
--	-----------------------------------	--------------------------------	------------------------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새 학기가 시작하고 중등부는 많은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 개학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묵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를 기다리는 40일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는 행사였는데 학업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쉽지 않았지만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중등부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임했다.



»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한 후 사진 찍어 인증하는 사순절 프로젝트



»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읽고 체크하는 말씀달력

학생 선교사 파송

또한 3월 3일은 학생 선교사 파송 주일이었다. 모두 멋진 교복을 입고 우리 학교에 하나님을 전하는 학생 선교사가 되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우리 중등부 학생 선교사들의 다짐이 참 멋있다. 그리고 3월 31일, 묵상하고 기도한 결실을 수확하는 부활절 특별예배를 드린다.



» 예배 시간 대표 기도



제자훈련

4월엔 중등부 상반기 제자훈련이 시작된다. 지난 제자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면접을 보고 뽑을 것이다. 면접을 보고 뽑는 이유는 친구들이 제자훈련을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새로운 제자훈련을 통하여 중등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갈 것이다. 제자훈련이 끝나고 6월부터는 여름 수련회 준비에 들어간다.

» 중등부 주일예배 엄유현 전도사의 설교에 귀 기울이는 중등부

2024 중등부 표어

2024년 중등부의 표어는 Worship(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등부), Bible(말씀이 기준이 되는 중등부), Pray(기도로 무장하는 중등부), Challenge(도전)이다. 이를 연결하면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이고 주제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이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응원한다.



» 중등부 찬양팀 '딜라이트'의 찬양 인도

≡ 꿈담 ≡ 고등부

고등부 수련회 스케치

1월 26일~1월 28일

구성 최아인 학생 기자

1일 차



1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주신 개그맨 이정규 님과 학생들 찰칵!



2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사람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3 벡타(공교육 현장 속 기독교사)의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에 대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름표 만들기 및 자기소개 시간)



4 설레었던 1일 차 저녁 집회 시간. 학생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5 매 일정 전 워십으로 시작을 여는 루다(워십팀).



6 조를 나누어 진행한 체육대회. 한 학생이 피구 공을 던지고 있다.

2일 차



7 은혜로웠던 저녁 집회 시간.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다.



9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고등부.



8 사랑을 가득 담아 고등부 학생에게 기도해주는 선생님.



10 4명씩 나와서 모두의 기도를 받았던 평생 잊지 못할 순간

3일 차



11 비몽사몽 3일 차 아침. 지난 이틀을 회상하며 소감문을 작성 중인 고등부.



12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찰칵!

AGAIN, 1907!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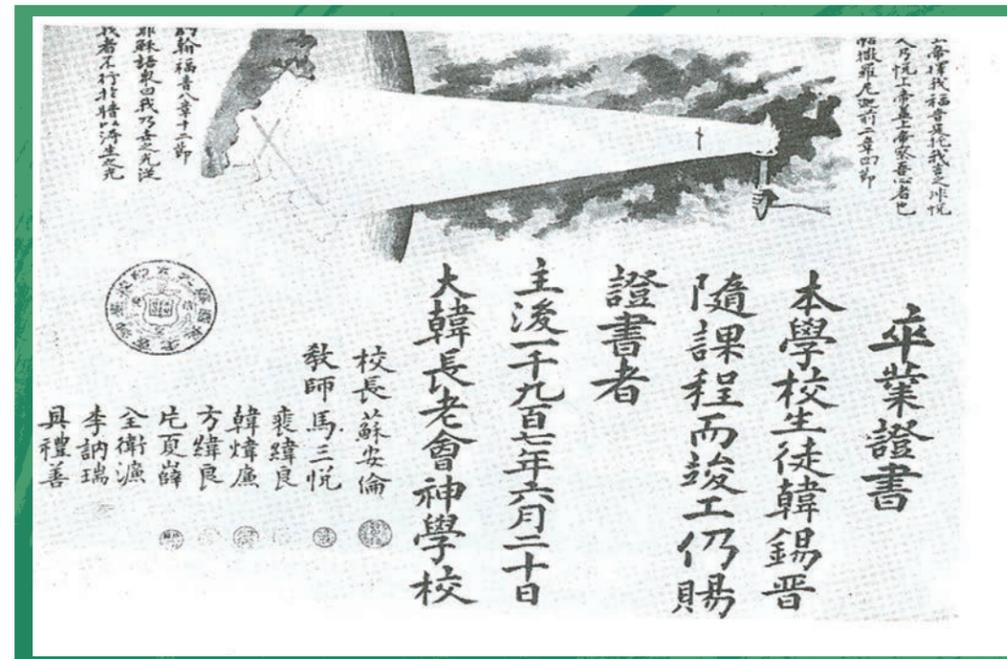
평양 신앙 각성 운동, 그 열매

기획 김형수 기자



글 임희국(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겨울호에서 언급했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신앙 각성 운동)은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회개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했던 당시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을 휘몰아쳤던 성령의 바람이 각 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 바람은 서구에서 불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의 불길이었습니다. 1907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 제1회 졸업생
한석진의 졸업장

1 신앙 각성-신앙의 잠에서 깨어남

1907년 1월 평양에서 일어난 신앙각성운동은 성령님이 회중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그 죄를 토해내듯 고백한 사건이었다. 성령의 역사가 신앙각성운동의 핵심 알맹이였다.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 무어(J.z. Moore)의 견해에 따르면,¹⁾ 한국인의 의식에는 본디 죄에 대한 분명하고 진지한 이해가 없었으며 그러하기에 죄 고백과 죄 용서에 대한 역동적인 체험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여태껏 기독교로 개종한 한국 교인들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한 자를 그가 본 적이 없었다. 물론 그는 한국 교인들에게 죄에 관하여 가르치기는 했으며 이것은 단지 지식 차원의 관념적 배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점에 관하여 선교사 무어는 나름대로 이해했다. 즉, 서양과 동양 사이에는 상호 “유사성”이 없고 “공통분모”도 없으므로 한국인이 서양인과 동일한 신앙 체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07년 1월 평양에서 일어난 신앙각성운동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본 것은 선입견과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 교인들이 선교사들과 동일하게 죄 고백의 신앙 체험을 했기에, 선교사들은 그저 놀라기만 했다. 한국(토착) 교인들 또한-성령 체험과 더불어- 이제야 비로소 참된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내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²⁾ 죄 고백의 회개로 깨끗하게 정화된 맑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1907년 1월 평양 신앙각성운동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을 각성하게(awakeing) 했다. 잠자는 신앙을 일깨웠다. 이 신앙각성운동은 교회 밖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교세 확장)와는 드물게 연계되었다. 전도와 교세 확장의 부흥을 뜻하는 신앙각성운동이 아니었다. 교회 역사가 백낙준과 이장식이 밝힌 대로, 평양 신앙각성운동은 교인 수 증

1) J.z. Moore, “The Great Revival Year”, Korea Mission Field(=KMF, 1907. 8.): 113-120.

2) W.G. Cram, “The Revival in Songdo”, KMF (190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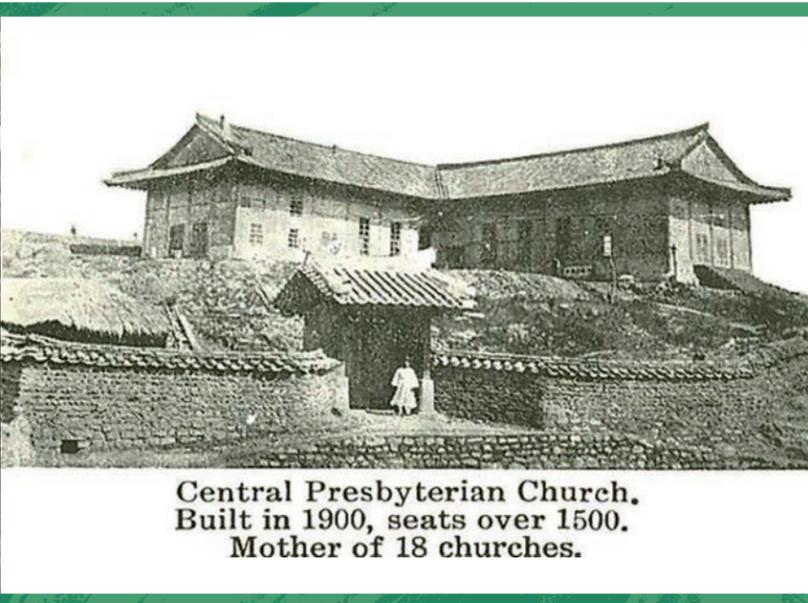
가나 교세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윤리적 결단이 일어난 사건이었다.³⁾ 삶에 변화를 일으킨 신앙각성이었다. 통계적으로도, 1907년 당시에는 개신교 교인 수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교인 수 증가를 위한 전도 운동은 -1907년 신앙각성운동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 '백만구령운동'(1910-1911)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1907년 평양 신앙각성운동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신앙각성'이었다.

2. 한국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형성

미국 장로교북장로회의 한국 선교 정책은 '한국 사람(교인)이 주체가 되는 한국의 교회'를 목표로 세웠다. 선교사 방위랑(W.N. Blair)에 따르면,⁵⁾ "토착(한국) 교회를 (미국 선교사가) 영원히 지배하거나 영원히 미국 교회의 통제하에 두려는 욕심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어서 속히 토착 교회를 "독립시켜서 토착(한국) 교인들 스스로가 복음 전파에 대한 모든 책임과

짐을 가져가게 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이 1907년 평양 신앙각성운동을 통해 실현되어 갔다.

계속해서 방위랑에 따르면,⁶⁾ "우리는 토착(한국) 교회의 (설립)을 원하는 것일 뿐, (이 땅에서) 미국 교회의 설립을 원치 않는다." 고 했다. 그 이전 시기인 1896년, 미국 장로교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스피어(Robert E. Speer)가 평양과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서 보고서(47쪽)를 작성했는데,⁷⁾ 한국에 "토착 교회"(The Native Church)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을 상세히 서술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의 글이 서술되었다.⁸⁾ "(한국에서) 우리들(미국)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한국)의 교회를 설립해야 한다. (...) 우리는 모세와 예언자에 관하여 선포하는 자들이며,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며, 이 교회는 결코 강력한 제도를 갖춘 미국 교회의 확장이 아니다.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란 어떤 이념이나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뜻한다." 이 말을 풀이해보면, 선교는 미국 교회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 땅에다 옮겨 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증언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한국의 토양(땅)에서 새로운 형태로 자라나는 토착 교회를 뜻했다.



⋈ 평양 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생(1907).
 길선주, 양전백, 이기풍, 방기창, 송인서, 서경조, 한석진

⋈ 평양 장대현교회 (1900년 건립), 신앙 각성 운동의 중심지, 평양의 어머니 교회

그들은(목사후보생들은) 이미 15,000명 이상의 학습교인이 있고 또 약 75,0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에서 최초의 토착인 목사가 될 것이다. (한국) 교회는 한국에 이식된 이국적이고 서구적인 교회가 아니다. 복음이 선포된 때부터 이 교회는 한국인의 삶에 적합하며 한국인의 삶과 관습이 성경과 같음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적인 토대를 둔 한국의 교회로 발전했다. 예배당은 한국적인 건축 방식으로 짓는데, 과시하기보다는 한국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었다. 내가 알기에는 600개 이상 되는 예배당 중에서 단지 20개 이하만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지어졌다.

1907년 9월 17일 "조선예수교장로회독(립)노회"가 성립했다. 1893년 미국 장로교 남-북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등 4개 교단의 선교사들이 연합과 일치(에큐메니칼)의 공의회(council)를 결성했는데, 그로부터 14년 후 한국 장로교회의 '독(립)노회'가 조직되었다. 노회의 회원은 78명(선교사 38명, 한국인 장로 40명)이었다. 노회에서 목사로 장립한 7명의 토착인(한국인) 목회자는 이제 선교사들과 수평적인 관계로 동역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선교사 마펏의 행적이 주목받았는데, 그는 자신이 교역하던 장대현교회의 치리권을 토착(한국)인 목사 길선주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 교회의 협동목사로 일했다. 한국 토착 교회가 실현되었다.

3. 토착(한국) 교회의 실현

토착 교회의 가시적 형성은 선교사가 가진 지도력을 토착인(한국인) 교회 지도자에게 넘겨주고 이 땅에 '독립 교회'(Independent Church=독립 노회)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1907년 1월 평양 신앙각성운동은 이 도시의 장로회신학교 학생(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대단한 관심거리였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4월 1일 새 학기에 서로 반갑게 만나는 학생들의 인사말이 "성령을 받았느냐?"였다.⁹⁾ 장차 목회자가 되어 교회에서 일할 하나님 일꾼들의 당연한 관심사였다. 학생들은 개학 첫 주간 매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였고, 그다음 주간에는 사경회로 모였다.¹⁰⁾ 이때 재학생 75명 가운데 대다수가 성령을 체험했다.¹¹⁾

그해 6월 평양 장로회신학교가 제1회 졸업생 길선주를 포함해서 7명을 배출했다. 이때 전국의 장로교회에는 "안수받은 장로가 있는 40개의 조직교회"를 두었고, 이제 곧 장로교회 노회를 조직해서, 첫 졸업생 7명을 목사로 안수하고 장립할 준비를 갖추었다. 교장 마펏(마포삼열, Samuel A. Moffett)이 벽찬 감정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¹²⁾

3) 백낙준, 『한국개신교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395; 이장식,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185.

4) 주재용,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사적(史的) 비판: 1907년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243호(1978. 9.), 71.

5) W.N. Blair and B. Hunt,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7), 61.

6) W.N. Blair, 위의 책, 62.

7) Robert E. Speer, Report on the Mission in Korea of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출판사 미상, 1896)

8) 위의 보고서, 46-47.

9) G.S. Mccune, "Opening Days at the Theological Seminary", KMF(1907. 6.)

10) 김인수(웁김), 『편하설의 선교일기』(서울: 쿤란출판사, 2004), 308.

11) W.M. Baird,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KMF(1907. 5.)

12) 사무엘 마펏, "한국의 교육 사역," 『인테리어』 38-1916 (1907년 2월 14일), 1-4. 인용: 서원모 외,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1903-1908』(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109.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혜의빛광성교회

글 김용기 기자

말씀과 구제, 두 날개로 성장하는 교회

“말씀을 준비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데 실력이 부족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2020년 12월 개척해 올해로 4년 차를 맞고 있는 고양시 화정동 은혜의빛광성교회 장동훈 담임목사를 만났다.

개척 후 성도와 지역과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장 목사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서먹한 관계를 넘어 교회의 진정성을 조금씩 인정해 주며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혜의빛광성교회의 개척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해마루촌광성교회 부목사를 거쳐 교회 개척에 나선 장 목사는 화정에 건물을 임대 계약했지만, 갑자기 계약이 파기되며 시련을 겪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개척을 원하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주님은 제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지금의 교회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 1 개척 3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고 온 성도들이 모여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 2 카페 겸 학생 예배 공간
- 3 성도들이 개척 3주년을 기념해 축하 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 4 전 교인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지난해 가을 나들이
- 5 본당 예배 공간

이단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 개척

은혜의빛광성교회는 이단 교회 자리에 들어섰다. 이단의 패악으로 지역 사회에 고통을 주고 떠난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빈틈이 없기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선택하고 주저함 없이 교회를 개척했다.

“이단 자리에 교회가 들어온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며 주민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진짜 교회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오직 말씀과 선한 사역만이 주민들의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 목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에 은혜가 있는 교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성경을 읽을 때 사용했던 ‘성담바’ 방법을 동원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성담바’는 ‘성경을 담는 바구니’의 약자로 성경 66권 각 권의 주요 구절과 단어, 장소, 인물 등을 일정한 색으로 칠해 성경의 맥락과 주제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어려워하던 성도들이 성담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성경 통독 참여가 늘고 있어요.”

신혼부부 사역과 구제로 지역사회 전도

은혜의빛광성교회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출퇴근하는 젊은 층이 많은 화정지역의 특성처럼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회이다. 성담바로 신혼부부의 성경 공부 참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환경에 눈을 돌리는 계기를 맞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고, 취약계층도 많아 돌봄이 아쉬운 지역사회의 실정을 알고 구제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사무소를 찾아 쌀을 정기적으로 기증하고, 장애인 학생의 등교를 돕고, 고시원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등 구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파송한 교육전도사와 교사 선교사의 도움으로 주일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예배를 활성화해 다음세대의 신앙 성장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장동훈 담임목사는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다.” 고 말했다.

은혜의빛광성교회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1.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먼저 기도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2.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

주님은 말씀에 기초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대로 훈련받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1) 90일 성경통독을 하는 교회

성도는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의 터를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자주 읽으며, 성도들끼리 성경에 관해 대화하길 좋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학적이며,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성경의 개론에 집중하는 교회

성경은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기에 개론 공부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3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레위기에 관한 설명을 10초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1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이를 60%의 참여율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위해 특별히 성경의 개론을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포인트는 1) 정복, 2) 정착입니다. 오래된 성도들도 여호수아

장동훈 은혜의빛광성교회 담임목사



90일 성경통독 시상식



지난해 여름 성경사경회를 열어 온 성도들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나눴다



부활절 세례식

3) 기초 양육과 새로운 양육이 있는 교회

성경을 기초로 한 삶의 다양한 질문으로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배의 말씀을 ‘집밥’이라고 한다면, ‘양육’의 시간은 근육과 신앙의 민첩성을 기르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양육교재를 통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현실 속에서 신앙의 힘과 근육을 키우는 건강한 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성도가 행복합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봉사뿐만 아니라 달란트와 재능으로 섬길 때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평신도 사역과 전도, 봉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리더를 세우고, 세워진 리더가 가정교회를 세워갈 때 성도는 지상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작은 교회인 소그룹이 활성화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광성드림학교 교육 철학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인

글 김정준 목사(광성드림학교 교목)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기독교대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2002년 12월에 '기독교대한학교 설립추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3년 1월부터 2005년까지 주 2회 준비위원회 모임을 통해 설립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려던 초기 계획과 다르게 초등학교를 먼저 세우기로 결정했고, 긴 준비기간 끝에 2006년 3월 6일, 80명의 학생과 함께 광성드림학교 초등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인 지금은 초중고 통합학교로 약 400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중인, 기독교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로 지역사회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개교 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초창기 초등과정만 있었던 것이 고등과정까지 생기면서 학교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대안 교육에 대한 비전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광성드림학교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성드림학교의 세 가지 인재상

먼저 광성드림학교는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합니다.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의 반대는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나라, 민족, 세계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 고통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성드림학교는 실력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합니다.

여기서 실력은 비전에도 나와 있듯이 성적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결과가 있는 일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더라도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며 헌신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 광성드림학교의 교육 목표

자답게 광성드림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갖춘 인재가 되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광성드림학교는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기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것을 남기기 위해 배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성드림학교의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으로 자신을 드러 이 땅을 섬기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의 인재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인'입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력으로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는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3의 노래 - 교사 자기 주도의 열매를 맺는 찬란하고 풍성한 광성드림학교의 고3

글 강수현(광성드림학교 교사)

대한민국 고3의 학교 현장을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반짝반짝하고 찬란한 색에 가까운가요? 시들고 생기를 잃은 흑백에 가까운가요?

광성드림학교 고3의 차별점은 학생들이 무지개보다 더 다양한 각자의 빛을 가장 찬란하게 발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광성드림학교에서는 고3도 예외 없이 다채로운 수업을 이어갑니다. 가장 많이 학년답게 각 교과에서 가장 심화된 활동, 프로젝트, 독서 탐구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과목별, 주제별 융합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공동체 활동에서는 가장 선배로서 팀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관심 진로 분야와 관련된 탐구를 원하는 주제와 깊이, 넓이로 진행하게 됩니다(물론 수능과 시험공부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학교가, 교사가 거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닌 자기 주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 동안 광성드림학교의 훈련 과정에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충성되게 임한 시간이 다양한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고3 시기. 우리는 광성드림이라는 뿌리 곶은 나무에서 무럭무럭 자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각자의 찬란한 빛깔을 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는 가장 힘들다는 고3의 시기가 광성드림학교에서는 가장 찬란하고 풍성하고 감사한 시기입니다.

≪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



고3의 노래 - 졸업생 15명의 동반자와 함께한 고3 생활

글 서유정(광성드림고등학교 2기 졸업생)

저는 2023년 고3 수험생 생활을 마치고 갓 졸업한 광성드림학교 고등과정 2기 졸업생입니다. 15명의 친구와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했던 너무나 소중한 특별한 광성드림학교 고3 생활을 나누고자 합니다.

1.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 경쟁이 치열해지기 마련입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결코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고등과정 중, 특히 고3 시기에 저희는 서로의 동반자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과 힘듦을 알아주며 '잘하고 있다.', '잘할 거다.' 서로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매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고, 그 시간을 통해 다채로운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입시를 준비하며 더 하나가 되는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섬김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과열된 입시경쟁 때문에 대부분의 고3 학생은 매우 예민하고 지친 상태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 후배들, 부모님들은 고3들이 다른 일은 잠시 접어두고 입시

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배려해 주시곤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드림이들은 입시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섬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년 저와 열다섯 명의 친구는 '고3 섬김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굣길에 서서 등교하는 후배들에게 밝게 인사를 전하고, 학교 벽화를 통해 학교를 꾸고, 고3 주관 예배를 드리면서 섬김을 실천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됩니다.

광성드림학교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1교시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또 매주 전교생이 다 같이 모여 뛰어들며 찬양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고3이라는 힘든 시기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좋은 대학, 인서울, 1등급에 목을 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에 마음 아파할 때도 결국엔 나를 통해 큰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친구들과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광성드림학교가 있었기에 대학이라는 나무가 아닌 더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 월요일 아침을 상쾌하게 맞을 수 있도록 등굣길 환영 연주를 하는 녹색 고3연주단



≪ 벽화 작업으로 학교를 꾸미는 학생들

고3의 노래 - 학부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3 학부모

글 이선영 집사(광성드림학교 2기 졸업생 학부모)

누군가 광성드림학교 고등과정에 관심을 보이며 “초·중까지는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고등은 입시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광성드림학교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올 때마다 전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 학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힘들어지는 곳이 바로 광성드림학교예요. 드림학교가 정답도 아닌데 그렇게 불안하시면 지원하지 마세요.” 드림이들의 학교생활은 너무 행복하지만, 주님 뜻 가운데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은, 치열함의 연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 귀한 과정을 오직 대입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이들은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제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해온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도전해 보세요! 세상 불만, 불안 가득했던 투덜이인 제가 보장합니다! 나는 약해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세 겹줄의 힘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3 학부모였다고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감동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공동체에 속했던 모든 시간이 그러했지만, 특히 고3 학부모로 보낸 지난 1년간은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수준 높은 진로·진학 컨설팅을 위해 기도하며 조사하고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내 자녀만이 아닌 서로의 자녀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부모님들, 정말 치열하게 자신의 진로·진학을 위해 준비했던 아이들, 그리고 입시는 12학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며 응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던 1기 졸업생 학부모

모님들을 포함한 모든 학년의 학부모님들까지. 세상에선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3 과정 내내 저는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3 학부모다!” 라고 말하고 다니며 훗날 다른 이들에게 이 감동을 고백하게 될 날을 상상하곤 했습니다(그날이 오늘인가 봅니다).

입시 결과가 나온 후 “행복하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 고백하면 누군가는 '뭐 자기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나의 감사를 평가절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9월 모든 수시 지원을 마치고, “주님! 저는 드림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아이를 맡기는 법을 배웠기에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감사한데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대학 합격이 되지 않아도 전 괜찮습니다.” 라는 아이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다시 겪고 싶지 않는 입시생 학부모의 삶이 저에게 진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광성드림학교 학부모는 졸업했지만 이미 내 자식이 되어버린 16명의 아이들을 계속 품고 응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껏 그 래왔던 것처럼.

≪ 열두 학년의 어머니들이 매달 모이는 '어머니 기도회'



♡ 조이풀 사랑빛마을 리더모임



♡ 조이풀 사랑빛 1패밀리 모임



♡ 가족 여행 중 부부 사진

조이풀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전병규, 정경희 집사님 부부

글 우주희 기자

돌이 아니요 한 몸이니(마태복음 19:6)

조이풀은 3040 가정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시끄러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허용됨을 누릴 수 있기에 이 공간이 감사합니다. 또 잃었던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3040의 소중한 예배처인 이곳, 조이풀이 오늘날 120개 정도의 가정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며 가꿔 오신 전병규, 정경희 집사님 부부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전병규 집사님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 시절 CCC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지금의 배우자이자 평생의 귀한 동역자인 정경희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일 년 만에 얻은 딸 다솜이가 이제는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십니다. 전병규 집사님이 사역의 선봉장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정경희 집사님은 그 뒤에서 기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사역을 통해 누리는 축복과 은혜

조이풀에서 전병규 집사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은 보기 드뭅니다. 늘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십니다. 전 집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을 내신 걸까요?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신앙 침체기를 보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부부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자연스럽게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집사님의 경우, 먼저는 김형주 목사님의 신혼부부팀 임원으로, 그러다 김 목사님의 남편이신 최창식 전도사님의 직장사역팀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직장사역팀에서 친하게 지낸 지체의 어머니 되시는 장로님의 추천으로 전혀 모르던 차광욱 목사님과 함께 젊은 가정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조이풀 공동체가 됩니다.

전 집사님의 직업은 헤드헌터입니다. 하나님은 직장 생활에도 간섭하셔서, 사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에서 전면 재택근무가 실시된 무렵, 프리랜서로 전향하

♡ 조이풀 과테말라 선교 - 휴식 시간



♡ 조이풀 과테말라 선교 - 노방전도



게 되어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조이풀을 지금처럼 섬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십니다.

훈련이 사역으로 연결되고, 이 사역이 저 사역으로 연결되는 그 세세한 과정들마다 이어주고 붙들어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삶의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상황들을 정리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삶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믿음

전 집사님의 교회 사역과 직장 일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정경희 집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최근 전 집사님의 불가능해 보이던 회사 프로젝트가 성사된 배경에도 정 집사님의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에서 부르짖으며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니다. 현재 조이풀 안에서도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 집사님은 작년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에서 이상할 정도로 매사에 일이 풀리지 않고 벼랑 끝으로 몰리다 결국은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통보를 받던 날, 마침 조이풀 김민혁 목사님께서 직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원래 계획된 직장 심방 날짜까지 변경되며 김 목사님이 방문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정 집사님이 슬퍼하실까 봐 참으로 애가 끊으셨던 모양입니다. 김 목사님의 방문으로 정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상황을 성경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습니

다. 가끔 신앙보다 앞세우기도 하며 영광으로 여겼던 직장 생활의 문을 닫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고난 앞에서도 색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꿈꾸는 사람은 아름답다

작년 여름 부부는 다솜이와 함께 조이풀 과테말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남편 전 집사님은 애초에 선교를 갈 생각도 없었고 가면서도 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다녀오고서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과테말라에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CCC 출신인 그곳 선교사님을 보면서, 대학 시절 하나님께 열정을 바쳐 CCC 활동에 매진하던 본인의 모습이 떠올라 쓰임 받는 기쁨을 되찾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조이풀과 교구를 연결하는 다리로 쓰임 받고 싶다는 비전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후 선한 목자 교육도 수료하셨습니다. 누구든 계속 조이풀에 머물 수는 없고, 때가 되면 교구로 옮겨야 합니다. 아직은 그 연결고리가 미비하기에, 집사님 부부는 언젠가 조이풀과 교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아름답게 하나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꿈꾸고 계십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노래가사처럼 두 분은 오늘도 꿈꾸기에 살아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글 박길환 기자(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발전 전공)

작은 나라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2019년 캘리포니아에서 잠시 연구년을 보내던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을 견인하던 날이 가끔 생각이 난다. 돌발상황에 반가이 찾아온 견인 기사가 불임성이 있는 분이어서 조수석에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차량 상태를 찍는 모습을 보곤 셀카(selfie)를 찍느냐는 너스레에 이어 제일 많이 견인하는 OO과 OOO은 절대 사지 말라는 정보까지 건네시던 이 분은 오십 평생 캘리포니아 밖에선 살아본 적도, 주 경계라고는 거의 넘어가 본 적도, 남한과 북한을 구분해 본 적도 없는 토종 미국인이었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인 미 달러의 통화량과 금리 조정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도 각각 50개 주로 이루어진 합중국이고,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도 국제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도 89개의 연방 주체들로 이뤄진 연방 국가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으나 현재 합계출산율이 1.0에 가깝게 떨어지는 동시에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한계에 다다르며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과 혁신에 있어서도 고전 중인 중국(22개의 성으로 구성)과 더불어, 이들 국가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른바 국제적이라 비유할만큼 소위 ‘주제적(州際的)’인 국가들이다.

국가 내부적 교류만으로도 LA나 모스크바 공항은 연일 북새통이지만, 국가 밖에 대해선 이들은 생각보다 무지한 경우가 많다. (물론, 전 세계 국가 평균 IQ 최상위국이 모두 동북아 국가일 만큼 교육에 있어서 ‘졸업장 열병’으로 비유되는 학위와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열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기에,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남한 기준 98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에 거주자본소득을 제외하고 약 40조 달러에 이르는 자본을 가진 미국, 3.7배의 면적에 약 25조 달러의 자본을 보유한 일본, 95배의 면적에 약 10조 달러의 자본을 보유한 중국, 그리고 독일(3.5배), 프랑스(5.5배), 영국(2.4배), 이탈리아(3배), 스페인(5배), 캐나다(99배)에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토 면적과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약 4조 달러의 자본을 보유하여 전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글로벌 경제, 기축통화, 미 연방준비제도

자, 그러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 우리의 무지는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자. 우선, 통화량과 금리 조정, 즉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움직이는 각국의 중앙은행, 특히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국제 결재와 금융거래에 통용 가능한 기축통화인 미 달러에 대한 통화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미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약칭 ‘the Fed’ 또는 ‘FRS’)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파운드화(영국), 유로화(EU), 엔화(일본) 정도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미 달러화와 분담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위안화는 한때 중국 GDP 규모가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음에도 특히 시장 기능에 의한 환율 조정 등 핵심 기능과 국가 간 보편적 사용 면에서의 한계로 아직 기축통화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일본은행(일본), 영란은행(영국), 프랑스은행(프랑스), 중국인민은행(중국), 이탈리아은행(이탈리아), 유럽중앙은행(EU), 러시아연방중앙은행(러시아), 스웨덴국립은행(스웨덴) 등 국가명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FRS는 왜 이름에 국가명도 없이 ‘제도’일까? 사실상 미국 중앙은행의 효시는 1791년부터 20년간 한시 운영된 미합중국제1은행이며, 1812년~1815년의 미영전쟁 이후 복구과정에서 1817년부터 20년간 한시적으로 미합중국제2은행이 다시 운영된 바 있다. 이후 1914년 FRS가 설립되기 전까지 20세기 전반기 50개로 늘어나게 된 각 주정부별(법률)로 각기 다른 주정부별 공식은행이 각기 다른 금리로 제각기 금융 부문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자연히 국내 화폐의 대내외적 통용에 혼란과 비효율성이 야기되었다. 결국 남북전쟁(1861년~1865년) 시기에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통일된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1863년에서야 「국립은행법」으로 미연방정부의 인가 은행에서 정책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1907년 공황 발생으로 미 뉴욕증시인 다우존스(Dow Jones) 지수가 반 토막이 난 가운데 은행들마저 연쇄 파산하게 되면서, 시장에 의한 금융시장 조정 기능을 보완하고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이듬해 설립

된 FRS는 정책집행최고기관인 ‘연준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12개 지역별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의 3개 부문 조직으로 출범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1929년 세계 대공황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막지 못했지만, 미국의 유일한 4선 대통령인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의 재임 시인 1933년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다시 2년 뒤 「은행법(1935)」을 통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연방준비제도’에서 ‘연준이사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게 되며 현재의 제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 달러 금리 등 국제경제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친 의사결정을 단행해온 FRB 의장 및 FOMC 위원장직은 그린스판(Alan Greenspan), 버냉키(Ben Bernanke), 옐런(Janet Yellen), 그리고 현재의 파월(Jerome Powell) 등이 연이어 수행해 왔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12개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들은 약 2,800개의 회원 은행들이 출자하여 연방의 화폐 발행으로 발생한 수익에 따른 총배당금의 6%는 회원 은행들에게, 나머지 94%는 미 재무부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부족한 내용이나 글로벌 경제에 있어 한국의 성장과 실질적 국제 경제 조정자 역할을 하는 ‘미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Dollar_In God We Trust

미 1달러 전면의 L은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발행을 의미하며, 12개 연방준비구 지역별로 각 해당 지역 연방준비은행 발행 화폐가 가장 많이 통용된다. 후면에 성경적 국가 모토인 ‘In God We Trust’가 함께 인쇄된다.

어둠과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 가는 공동체, 광성라이프호프팀

글 고영수(광성라이프호프 팀장)

뉴스와 인터넷에서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현재 자살률 1위입니다. 2022년 한해 12,906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약 35명이 자살하고, 사망원인으로 10대~30대는 자살이 1위, 40~50대는 2위, 60대는 5위이고, 전체 대한민국 사망원인 중 자살이 5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충격과 슬픔과 아픔으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이 약 6명~10명(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 이릅니다. 한 해 발생하는 자살자 수와 영향을 받는 인원수를 곱하면 매년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는 우리가 먼저 자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살 예방 활동으로 이 땅의 어둠과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가기 위해 거룩한빛광성교회는 2013년 12월 1일(주일) 광성라이프호프팀(자살예방 활동)을 창립했습니다.

교회와 교양·파주 지역사회에서는 현재 무너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예방 캠페인 활동, 자살유족을 돌보고 지원하고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광성라이프호프

1. 자살 예방 교육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자살 예방 생명보듬이) 교육을 통해 자살을 암시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상황의 징후를 보이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들에게 도움의 자원을 연계해 주는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생명보듬이 양성 과정을 통해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지역사회 자살 예방 기관에서 필요한 생명보듬이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2. 자살 예방 캠페인 활동

교회와 지역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 예방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기관을 소개하고 도움의 전화 상담 번호(24시간 청소년·성인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상담번호 109)를 홍보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3. 자살유족 돌봄 활동

교회 성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자살로 잃은 자살유족에 대한 낙인, 편견, 오해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살유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유족 아동·청소년 가정을 돕기 위한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며, 세계자살유족의 날(11월)을 기념하여 생명보듬 예배를 드리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우리 교회는 2020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에서 시상하는 제1회 생명보듬교회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제2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에서 광성라이프호프팀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대로 실무자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좋은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영화 ‘안녕하세요’ 단체 관람 행사에 참여한 어느 성도가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영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해주셔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봉사하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기에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양·파주 지역사회에서 어둠과 죽음의 문화를 밀어내고, 그리스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의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자살 예방 운동에 힘써 온 광성라이프호프 활동 사진 전시회

‘고맙습니다’ 릴레이

기획 김형수 기자

지난 27년을 돌이켜보면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감사’, 그리고 또 ‘감사’였습니다. 이에 『겨자씨』는 2024년 봄호부터 성도 한 분, 한 분의 고마움을 전하는 장을 마련하여 그 사랑의 띠를 이어보기로 했습니다.

1. 전영의 권사님은 김은숙 권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2012년,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어색한 마음으로 제가 처음 『겨자씨』 문을 두드렸을 때 권사님께서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권사님과 함께한 순간순간을 떠올려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단 세 사람이 발간 모임을 할 때는 『겨자씨』의 앞날이 걱정스러웠는데 어느새 오늘까지 이르렀네요. 권사님께서 늘 소녀 같은, 예쁜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역 수필가이신데 아마추어인 우리와 아무런 격의 없이 어울려 주시던 모습. 누군가 실수하거나 서운하게 해드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어린 기자들을 품에 안아주시던 모습. 권사님께서 들려주시던 문인들 러브스토리, 참 재미있었습니다. ‘안동역에서’ 가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씀하시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저도 권사님 연세가 되었을 때 젊은 사람들과 그렇게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건강 때문에 올해 『겨자씨』 현장을 떠나게 되셨지만 우리는 권사님께서 곧 돌아오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한결같은 모습으로 『겨자씨』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언젠든 편하게 찾아주세요.

2. 김은숙 권사님은 김옥자 권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몇 살까지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나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10여 년 전의 일이다. 오랫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 마침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 모든 과정은 돌이켜보기조차 힘든 일이다. 수술 후 심신이 한없이 나약해진 모습으로 병상에 있던 어느 날, 뜻밖에도 김옥자 권사님과 김정형 권사님이 문병을 오셨다. 추운 겨울, 이대 목동병원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 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 전영의 권사와 김은숙 권사



⊗ 김은숙 권사와 김옥자 권사

어느 시인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말했듯, 힘든 투병 중에 있는 나에게 그날, 권사님들의 방문은 그분들 뒤에 계시는 주님의 위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지 못한 죄책감에 왈칵 목이 메었다. 그 후로도 그날의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어려워서 스스로 알리지 못했던 교구장 목사님(현재 ‘풀향기 교회’ 신평진 위임목사님)께도 연락하여,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재활병원까지 두 번이나 찾아주셔서 쾌유를 빌며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교회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내게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섬김을 베풀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나 친화력 있고 한결같은 김옥자 권사님을 만나면 언제나 옛 친구를 본 듯 반갑다. 오늘도 목장은 물론 중보기도회, 백합찬양단 등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김옥자 권사님, 그리고 지금은 운정광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형 권사님께 이 기회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

3. 김옥자 권사님은 김종인 목사님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구 담당으로 김종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가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아 보이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꺾어보니 실제로 참으로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제 남편이 뇌 수두증으로 대구 칠곡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집으로 오셔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대구 병원에서 수술 직전에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시다. 목사님께서 전화로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뇌 수두증은 뇌에 물이 고이는 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수술로 회복되기도 하는데 제 남편은 나이 탓인지 무려 세 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3번째 수술 때, 대구에 내려가기 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눈물이 나서 말을 잊지 못하는 데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라고 하셔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술 직전 목사님께서 또 전화하셔서 은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와 먼 거리 때문에 함께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셨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저와 남편은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 주신 확신대로 남편은 3번째 수술 후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할 땐 축복받고 사는 걸 몰랐는데 남편의 투병 후에야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다른 교구로 옮기셨지만 김종인 목사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지금처럼 따뜻하고 훌륭한 성직자로 많은 이에게 사랑을 나눠줄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4. 김종인 목사님은???

‘고맙습니다’ 릴레이는 여름호로 이어집니다.



⊗ 김종인 목사와 김옥자 권사



거룩한빛광성교회 유아부 · 유치부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냄새
봄바람, 단맛
봄은 예쁜 웃음

사진 이용주 기자





청년광장

"청년이란 빈칸이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 김다운 전도사 -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kscn

인생의 선배, 전도서의 지혜로 얻은 통찰 인생의 길을 같이 걷는 청년들에게

글 강철민(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회장)

지난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전도서 말씀에 기반한 '삶, 마침내 깨닫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나의 고민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최근 크리스천 청년들의 고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직업, 연애, 결혼, 미래 등 순간순간마다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은 종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목표만을 쫓으며 그 속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내 모든 것이라 여기게 되면, 끊임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불안을 해소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현실과 '진정한 가치에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처한 환경 가운데 불안과 절망에 빠지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함께함의 가치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스스로 포기 못 하는 것들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6월, 교회에 성경대학 특강을 하러 김기석 목사가 오셨는데, 강의를 끝나고 우연한 기회로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이러한 나의 고민에 대해 여쭙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민은 정말 당연한 것이며,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답해주시길 그러기 때문에 '교회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모인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서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이 말씀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 조금 다를지라도 결코 틀리지 않다.'며 공동체가 함께함으로써 이를 증명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

그런 저에게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는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준 공동체가 있었기에 힘든 순간에도 세상의 기준에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주님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청년들이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지키고자 묵묵히 자리를 지킨 청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고 새가족 청년들도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면 좋겠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부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같이 걷는 청년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삶의 여정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 공동체에서 만난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



☞ 친한 동네형 같은 차선우 목사님과 연탄봉사 도중 찰칵



☞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청년부 공동체



☞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겨울수련회

가치로 소통하는 디자이너와 지역 농산물과의 소중한 만남

글 장예지(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내가 좋아하는 일

제가 좋아하는 일은 잘 만들어진 제품에 가치를 담고 이것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와 함께 디자인제품 브랜드를 런칭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슬로건으로 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쓰고 버려지는 소재가 아닌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금속을 소재로,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용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가진 가치를 함께 제공하고 그 가치에 공감하고 좋아해주는 고객들 만나 소통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했습니다.

농산물과의 첫 만남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고추냉이 농가와 고추냉이로 세제를 만드는 사업체와 함께 협업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디자인 요소에만 집중하던 저에게 농산물이라는 매개체는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입농산물이라고만 생각했던 ‘와사비’가 우리나라 DMZ 안 철원에서 고추냉이라는 이름으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고객에게 알려지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생산자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결하기엔 많은 돈이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죠. 저는 제가 느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좀 더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의 작은 도움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로컬푸드, 건강한 먹거리

이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개념이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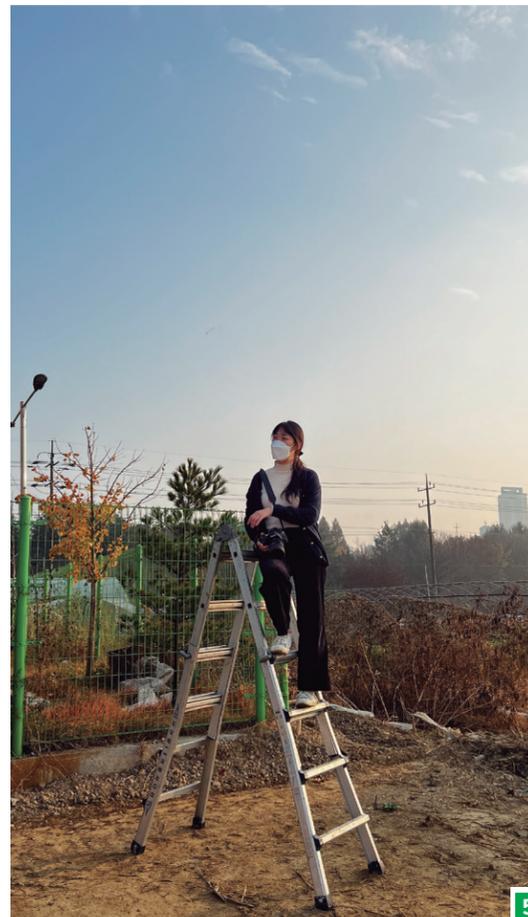
2



3



4



5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는 운동인데요, 주로 농협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고, 저는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홍보하면서 안타까울 때는 최근 높아진 물가에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선호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인이 대다수 사라지거나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해야 농업인도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의 자리에서 묵묵히 저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지역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면 이것은 나에게 또 다른 성취감으로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농산물과의 소중한 만남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더 나은 디자이너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1 브랜드 제품 홍보영상 촬영 현장

2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추냉이

3 로컬푸드 매장 내부 사진

4 고추냉이로 만든 세탁세제

5 행사 촬영 중인 모습

결혼, 사랑의 지경을 넓히소서

글 김민석, 신나래 부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민석, 신나래 부부입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코너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연이 저희 부부 이야기라고 하니 설레는데요, 저희가 살아온 이야기를 살짝 들려 드릴게요!

먼저 첫 만남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했었는데요~ 거기 선배가 자기네 교회에 괜찮은 자매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생애 첫 소개팅이라 떨렸는데요,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이미 내 심장은 '쿵' 하고 뛰었습니다." 결혼 서약서에도 썼던 내용이었지만,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인 버스정류장에 아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처음 보는데, 너무 예뻐던 기억이 생생해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점심 메뉴도 신경 썼는데, 신경 썼다는 메뉴가 크림파스타, 크림리조토, 등심 스테이크... 느끼한 걸 좋아하는 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네요! 시원한 동치미라도 있었으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비도 낭만적으로 느껴지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소개팅을 시켜준 선배에게 감사 전화를 전했어요~ 너무 예쁘고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부끄)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희는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놀러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아, 다투기도 많이 다투었죠... 그래서 함께 성숙해지고자 신앙관, 결혼과 연애 강의를 듣고 함께 맞춰가고자 서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투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닥투닥거리며 잘 살아보자.' 생각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 4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아내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앞에 있던 하얀 화면의 모니터가 새까맣졌거든요. 절망하며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동시에 내 기질과 성격대로 아내를 톰툰 힘들게 했던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혹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 라라 2기 부부중창단



« 첫 기념 사진



« 23년 여름 휴가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중보기도와 응원 덕분에 공동체로부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치료 과정 동안 저희 부부는 더 깊고, 다양한 사랑의 감정과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었죠. 문득문득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휘몰아칠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희는 다시 결혼할 거예요! 연애 때 최대한 데이트 가면을 벗어 던지고 만났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래도 아주 얇은 가면을 썼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원죄를 가진 인간인데, 서로 만나면 성숙한 교회 오빠, 누나인 척... 하지만 결혼은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권장하고 싶어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으므로... 로맨스의 사랑을 넘어 한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성장과 성숙이 살아가는데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결혼하세요~^^

함께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일의 기쁨도 두배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정의 기쁨을 더 넓게 배워가고 있어요. 우연히 교회에서 듣게 된 부부 코칭 세미나가 인연이 되어, 라라 중창단 2기에 합류하게 되면서 많은 결혼 멘토 집사님들도 만나게 되었죠!

미디어팀에서 남편은 카메라로, 아내는 자막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배를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해요! 올해는 조이폴 장년부 리더의 자리로 섬기게 되어 저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아내의 건강이 잘 회복되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소망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 젊은 가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심을 깨닫는 삶의 간증을 만들어가길 꿈꾸는 것입니다.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결혼 1주년

수어

수어통역 장현정 권사(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장)

안녕하세요? 수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이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짹짹!

교회



목사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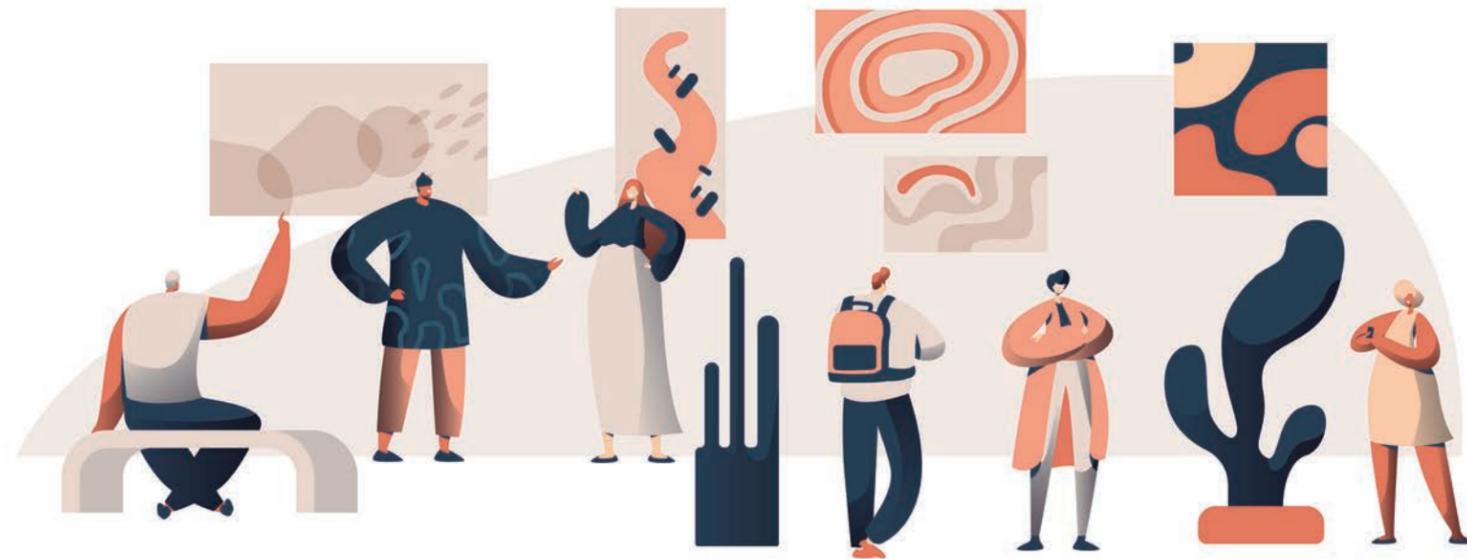
전도사



선교사



문화 & 독자 마당



산 환타지아



작가 노트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산은 그 예술의 중심에 있다. 산은 아름다운 새들과 각종 동물을 품에서 낳고 기른다. 수많은 꽃과 나무들과 풀들을 안아서 키운다. 이런 생육 번식의 힘과 능력은 산만이 가진 능력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선물인가. 그림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공간을 이루며 강물처럼 흘러가는 표현은 산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그려본 것이다. 아무리 그려내도 모자라는 것이 산의 진면목일 것이다.



지성찬

시인, 화가

저서

『서울의 강』, 『깨끗한 그릇』, 『백마에 서온 편지』 외 다수

수필

『깨끗한 그릇』 중학국어 1-2에 수록

디즈니 100주년 작품

<위시(WISH)>를 보고

글 최예준 학생 기자

‘100’이라는 수를 보면 매우 크게 느껴진다. 난 어느 날 디즈니 100주년 작품인 <위시(WISH)>가 개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0주년이라니? 꼭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영화관에 갔다.

영화 <위시>의 내용은 이렇다.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왕국 ‘로스스’에 총명하고 꿈 많은 소녀 ‘아샤’가 산다. 아샤는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소원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매그니피코왕’의 숨겨진 계획을 알게 된다. 아샤의 간절함 덕분에 무한한 에너지를 지닌 특별한 ‘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샤는 별과 귀여운 염소 친구 ‘발렌티노’와 친구들과 함께 매그니피코왕에게 맞서 진심 어린 소원과 용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증명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진심 어린 소원과 용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진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막냇동생이 생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약 1년 뒤 막냇동생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들어 주시지 않지?”라며 불평한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디즈니 100주년 영화, 기대한 만큼 너무나 재미있었다.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 디즈니식의 아름다운 음악은 영화를 더욱 조화롭고 재미있게 해준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시간, <위시>. 꼭 보기를 강력 추천한다.



⊗ <위시> 포스터

⊗ <위시>의 주인공 '아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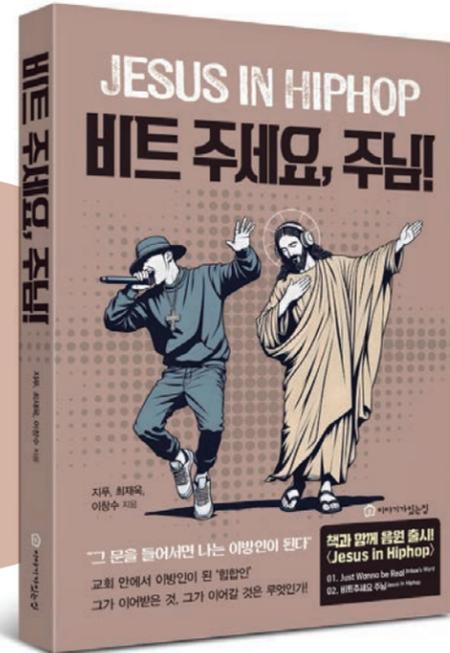
⊗ <위시>의 한 장면



작가가 된 거룩한빛광성교회 최재욱 목사 『비트 주세요 주님!』 발간

글 전영의 기자

“
힙합 정신은
사랑, 존중, 수용, 이해, 치유!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어
”



※ 기독교와 힙합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비트 주세요, 주님!』



※ 첫 저서 『비트 주세요, 주님!』이 많이 팔리기보다는 많이 읽히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는 최재욱 목사



힙합 책을 발간하셨네요.

『비트 주세요, 주님!』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존중’입니다. 힙합(hip hop)의 정신 또한 ‘존중’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힙합입니다. 그동안 힙합이 반항과 일탈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곤 했는데 이것은 힙합을 전혀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독교에 왜곡된 힙합, 힙합에 왜곡된 기독교’의 편견을 깨트리고 힙합이 교회 안에서 음악의 한 장르로 확산되고, 세대 간 소통의 가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트 주세요, 주님!』을 썼습니다.

레퍼, 목사, 전도사! 공동 저자 3인의 이력이 다양합니다. 저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모두 크리스천이며, 힙합에 심장이 뛰는 사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푸’는 크리스천 정체성을 가지고 언더그라운드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힙합 아티스트입니다. 2022 한류 힙합 문화 대상 ‘K-Hiphop Artist 우수상’을 차지한 재원입니다.

‘리튼 바이 라디오’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래퍼 이창수 전도사는 시대와 교회의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내며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푸른나무교회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랩하는 목사 저 ‘최재욱’. 2013년 창동영광교회 청소년부 부임 인사를 랩으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의 여정 속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힙합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청년부에 이어 현재 장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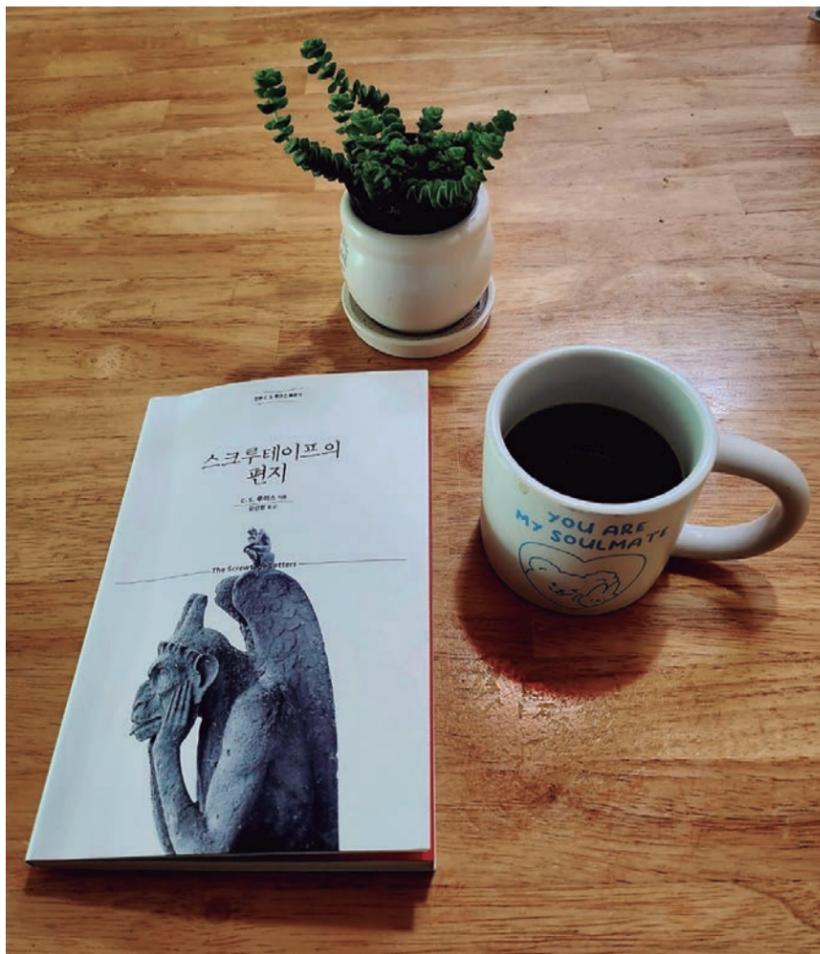
목회자, 청소년을 만나는 교사, 기성세대 모두가 읽기를 바랍니다. 힙합은 더 이상 특송, 청년 찬양 축제에서나 접할 수 있는 특수 장르의 음악이 아닙니다. 힙합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가사 속에는 젊은 세대의 꿈과 시대정신이 세밀하게 녹아 있습니다. 힙합이 유독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힙합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표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힙합의 가사를 보면 어느 장르의 음악보다도 솔직하고 거침없습니다. 힙합을 알면 젊은 세대와 훨씬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트 주세요, 주님!』은 주인공 ‘예진배’가 ‘기독교’와 ‘힙합’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을 소설형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비트 주세요, 주님!』이 진배처럼 기독교와 힙합 사이에서 부유하는 크리스천 래퍼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힙합이 사랑, 존중, 수용, 이해, 치유 등을 행한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있다는 것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주님!』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독교와 힙합을 함께 다룬 책으로 초석을 다졌다.’, ‘기독교와 힙합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고등부 제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등 다양한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기보다는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판매처: 온오프라인 서점, 지혜모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글 김형수 기자(소설가, 필명 김범)

1942년 발간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8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랑받는 인기 소설입니다. 소설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보내는 31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인간)를 원수(예수님)로부터 지켜내거나 빼앗아 타락시키는 것이 악마들의 임무인데 중견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아직 신참인 조카에게 인간 타락의 비법을 전수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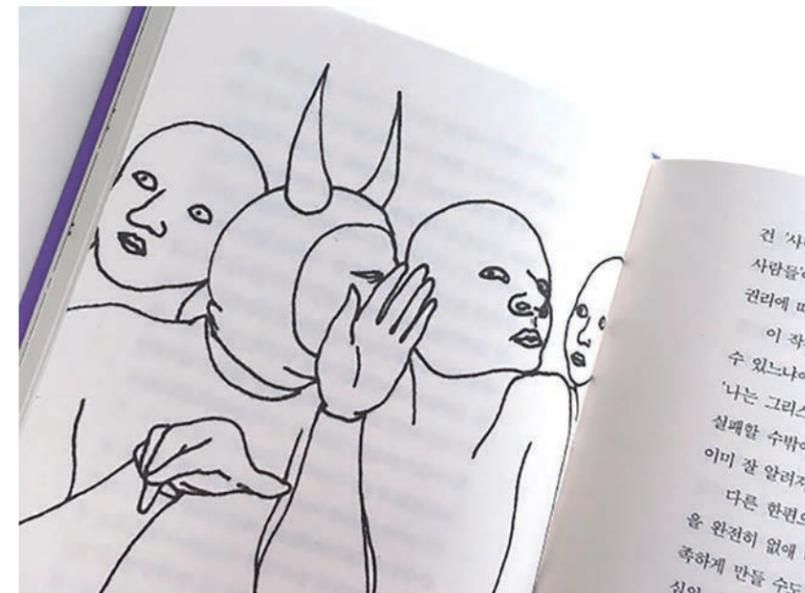
매우 경쾌하고 가벼운 톤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빠르게 읽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경박함, 교만, 위선, 무지함 등등 인간의 약점이 열거되는데 ‘내 내면에도 이런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독서는 대단히 느리게 진행되며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결코 어려운 소설은 아닙니다. 중간 중간 실소가 터지는 C.S. 루이스 특유의 재치와 단순 명료한 서술로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친근한 소설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기독교 소설 중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소설은 어떻게든 인간을 원수에게 뺏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악마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들의 원수, 예수님과 나약한 환자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백미는 ‘뛰어난 능력자인 악마가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인간을 빼앗기는가?’입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악마는 단하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앞에서 악마는 속수무책입니다. 이 울림과 감동이 비교적 가벼운 이 소설을 명작의 반열에 올린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 소설과는 무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은 예수님과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루에 딱 한 편의 편지만 읽었습니다. 한 달의 독서를 끝내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외에도 참으로 많은 기독교 소설과 글을 남긴 대문호입니다. 젊은 시절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떠났다가 중년에 들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작가는 마치 회개하듯, 속제하듯 치열하게 기독교 명작을 쓰고 그의 글처럼 경쾌하게 하늘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나의 삶에 리프레시(refresh)와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준 대만 VISION TRIP

2024년 2월 3일 ~ 6일 대만 타이중 지역

글 최아인 학생 기자

솔직히 고등학생에게 겨울방학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까운 시간인데 비전 트립을 간다고 하니 학원 선생님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에 덩달아 내 마음 또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대만 트립에 투자하는 것이 맞나?', '한국에서 공부하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앞서 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에 잠겼다. 그래도 대만이라는 가보지 않은 세계와 하나님의 확신의 한마디 덕분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다. 꿈꾸는 다음세대 대만 VISION TRIP을 사진으로 구성해 보았다.

DAY 1



출발하는 날 아침. 두려움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부모님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대만에 도착한 날. 현지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심유진 학생.



숙소 근처 공터에서 내일 공연할 스킷 드라마(일정한 시사적인 주제를 짚은 극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

DAY 2



현지교회에 도착한 기념으로 찰칵! 다들 일찍 일어나서 비몽사몽하다.



현지교회에서 스킷 드라마를 공연한 모습. 다들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잘 전해졌을 거라고 믿는다.



식사 후 현지 교인분과 최시은 학생이 교류하고 있는 모습.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식사 후, 대만의 자신이 먹은 밥그릇은 자신이 설거지하는 문화 덕에 자신의 밥그릇을 설거지하는 학생들.



대만의 대표적인 간식인 버블티 집에서 현지 교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습한 날씨에 시원한 음료수를 먹으니 다들 표정이 밝다.



다음 일정인 보육원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전광판에 써있는 '거룩한빛'이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맨 오른쪽에서 계신 원장님은 과거 이곳의 학생이셨다고 한다. 조이 원장님의 가르침 덕에 현재의 원장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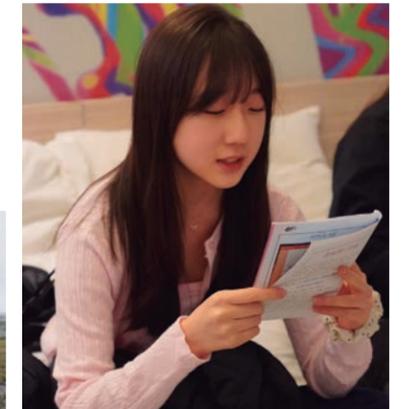
DAY 2



고미습지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아 신난 학생들과 전도사님, 목사님. 이 날은 비록 안개가 심해서 노을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함께라서 즐거웠던 것 같다.



바다 쪽으로 가서 바닷바람을 만끽하고 있는 황하진 학생.



저녁 비전 나누기 시간에 발표하고 있는 김단아 학생. 식사 후 방으로 갔다가 다시 17명의 인원이 모이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 힘들었는데 레크리에이션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힘들음을 잊어버렸다.

DAY 3



경치 좋은 일월담 호수에서 찰칵! 오늘 일정이 알차서 모두들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놀이동산에 가서 후롤라이드를 타고는 물에 젖은 생쥐가 된 학생들과 전도사님.



저녁은 용돈을 받고 야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먹었는데 특히 음료수가 정말 싸고 맛있었다.

DAY 4



무지개 마을에서 찍은 단체사진. 다들 일상으로부터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하다.

마무리글

중국어 특송을 연습하면서 작년에 배웠던 중국어가 새록새록 떠올라서 뿌듯함을 느꼈다.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 모두 1시간씩 연착되어서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었지만 모두와 함께라서 '새로운 형태의 휴식' 이라고 느껴졌다. 대만에서 알차게 지내다 보니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준비해 간 특송과 스킷 드라마를 할 땐 대만에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 간 스토리가 전달된 것이 느껴져서 아주 작은 고생들마저도 잊혀졌다.

돌아가는 날 모두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피곤함이 반쯤 섞여 있었고 또다시 시작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에게 이번 비전 트립은 나의 삶에 리프레시(refresh)와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준 것 같아 후회는 없다. (그래도 비전 트립 기간 동안 밀린 숙제와 보강 때문에 일주일을 너무 피곤하게 보낸 고등학생이었다.....)

언제나 그리움

글 윤귀분 권사



« 딸네 가족사진



내 딸은 언제나 그리움

서운함도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

이내 마음은 딸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일까 보다

암의 투병 속에 지친 마음을 또 건드려서...

딸네 집 며칠 못 갔다고 손주들과 부대끼는 모습들이 그리워진다

큰아이 일곱 살

둘째 아이 네 살

셋째 아이 세 살

고만고만한 새끼들의 땡깡으로 소리 지르고 떠드는

그리움!

시모와의 속상한 마음, 그리움!

남편과의 짜증 섞인 다툼, 그리움!

모든 것이 궁금함이 그리움이 된다

이 마음이 친정엄마의 마음인 것을...

이제는 딸이 회복되어 복직했고 이 글을 통하여 그동안 기도해주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기도해주세요. 저도 도움받은 것 이상으로 기도로 빛을 갠지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의 아픔을 통해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딸이 건강을 회복하여 직장에 복직하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투병 중 '엄마, 우리 가족사진 좀 찍자.'라는 딸의 말에

'그래! 가족 모두 건강할 때 가족사진 찍자!' 했지요.

그 약속 지키게 된 것도 감사.

암 투병 때 1회 항암 들어가면서 머리가 온통 다 빠져서 민둥머리가 되었던 딸. 가발을 쓰고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민둥머리 안 보여 주려고 애쓰던 그 딸의 모습이 안쓰러워 밥 먹다가도 울고 수없이 울었던 그때~~

이젠 지난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또 눈물이 납니다. 큰 손주 현수가 이제 의젓한 초등 3학년이 되어 엄마를 도와주는 착한 아들이 되었고, 유난히 땡깡이 심했던 둘째 현진이도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한지 엄마 붕어빵입니다. 내년엔 학교 들어갑니다. 막내 현정이도 어쩔 그리도 예쁜지. 막내 덕분에 웃게 됩니다. 연년생 언니와 사이 좋게 잘 놀고. 물론 싸울 때도 있지만 날마다 전쟁과 평화입니다. 손주들 셋 우리 집에 왔을 때 목마를 타는 모습이 정말 예쁘지요? 이젠 저도 웃을 수 있습니다.



⊆ 개구장이 외손주들

당신에게

글 서보연 권사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그곳에 소년을 그려줬어요

12세 소년은 동화 속의 왕자였어요

교실에서도 동네에서도 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소년은 칠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는 둘이서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우리 맑은 호수를 그려요 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게
شم터도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도 그리면 좋겠어요
해가 낫녘녘 서산으로 넘어가면
당신을 내 안에 그려주신 분께 감사기도를 드릴 거예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추억 이벤트

여름호 『겨자씨』에서 ‘피서지에서 생긴 일’ 추억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채택된 사진과 사연은 여름호 『겨자씨』에 소개하고,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피서지 추억이 담긴 사진 & 사연 5~6줄

참여 기간: 5월 4일까지

보낼 곳: jye3315@naver.com

문의: 010-2579-4687



☞ 2024년 주빌리 신년하례회(2024. 1. 6. 사랑의교회)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오게 하는 통일기도운동

글 오성훈 목사(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움트는 봄이 돌아왔건만, 한반도의 계절은 한겨울에 공공 묶여 있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은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했고, 최고지도자가 직접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 이라고 단정하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킬 것을 공언했습니다.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반도에 진정한 봄이 오거나 할 것인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가 남북 정치 지도자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일반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 교회마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가 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통일선교 연합선포식(2023. 7. 27. 국군중앙교회)



그런 면에서 정성진 목사님께서 이끌고 계신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부분의 통일선교사역이 침체기를 겪을 때에도 국내지역모임이 27개로 늘어 배가 되었고, 특히 2023년 2월에는 복음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에서, 5월에는 몽골에서 주빌리 해외지역모임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영역에서 연합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광승현 위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이렇게 귀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화 시인이 그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마지막으로 읊조렸던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탄식을 함께 느끼며 한 교회라도 더, 한 성도라도 더 분단된 조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http://jubileuni.com>



◀ 갈릴리 선상 예배에서 설교하는 정성진 목사

크로스로드 후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3-753130

예금주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크로스로드 사무실

031-901-0316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4 SPRING VOL.50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50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광승현

발행일: 2024년 4월 7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최아인, 태경환, 최예준

청년부 취재기자: 조희성

장년부 취재기자: 김용기, 강혜미,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박길환

사진기자: 이용주

편집: 김형수

책임편집: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소통과 섬김이 있는 삶



메주꽃 요양원

☑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 공간

☑ 소수 인원으로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 요양기관전문 협력병원 지정으로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

☑ 가정방문간호사, 상주 간호 요원 배치

☑ 실·내외 CCTV, 자동 대문, 자동개폐출입문, 넓은 주차장

☑ 요양시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 IC 2분 거리

☑ 계약 의사 방문 진료(2, 4주 수요일)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노래교실

미술교실

이야기교실

여가 프로그램

놀이교실

실버체조

음악감상

인지 프로그램

학습지 활동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ju_nursinghome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142

전화 031)953-9935, 010-9794-9879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5호점 자유로점

OPEN!

2024.04.08 자유로점 오픈
2024.04.12~14 오픈 행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확하자 마자 바로 식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육 · 즉석반찬 및 즉석두부
제철과일을 함께 만나보세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74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1층
로컬푸드직매장 5호점 자유로점

TEL: 031)906-8701

- 금융점포** ■ 본점 975-8061 ■ 풍산지점 906-3234 ■ 산들지점 977-6540 ■ 마두역지점 903-6251 ■ 자유로지점 906-8161 ■ 양지지점 922-4381
 ■ 강촌지점 932-8061 ■ 정발산역지점 908-8061 ■ 백석역지점 904-8061 ■ 탄현지점 912-8061 ■ 풍동지점 907-8071 ■ 탄현북지점 916-8061
 ■ 풍산역지점 977-8062 ■ 킨텍스역지점 918-8061 **경제사업소** ■ 영농지원센터 907-0252 ■ 제1·2농기계서비스센터 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975-8701 **로컬푸드** ■ 로컬푸드 풍산점(1호점) 906-3666 ■ 로컬푸드 일산점(2호점) 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3호점) 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4호점) 918-8161 ■ 로컬푸드 자유로점(5호점) 906-8701 ■ 로컬푸드 민마루점(6호점) 추진중